



I&S
INTEGRATION & SOLUTION

저희는
의뢰인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바른 길이 있음을 믿습니다

의뢰인들의 문제는 해결을 요구합니다.

상황에 따라 정의와 진리가 다를 수 있다는 상대적 기준과 이해관계를 중시하는 당파적인 관점으로는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상황이 영향을 줄 수 없는 변치 않는 정의와 진리의 기준과 이해관계를 넘는 타당한 가치를 추구하는 관점으로만 문제가 근원적으로 해결될 수 있음을 저희는 믿고 경험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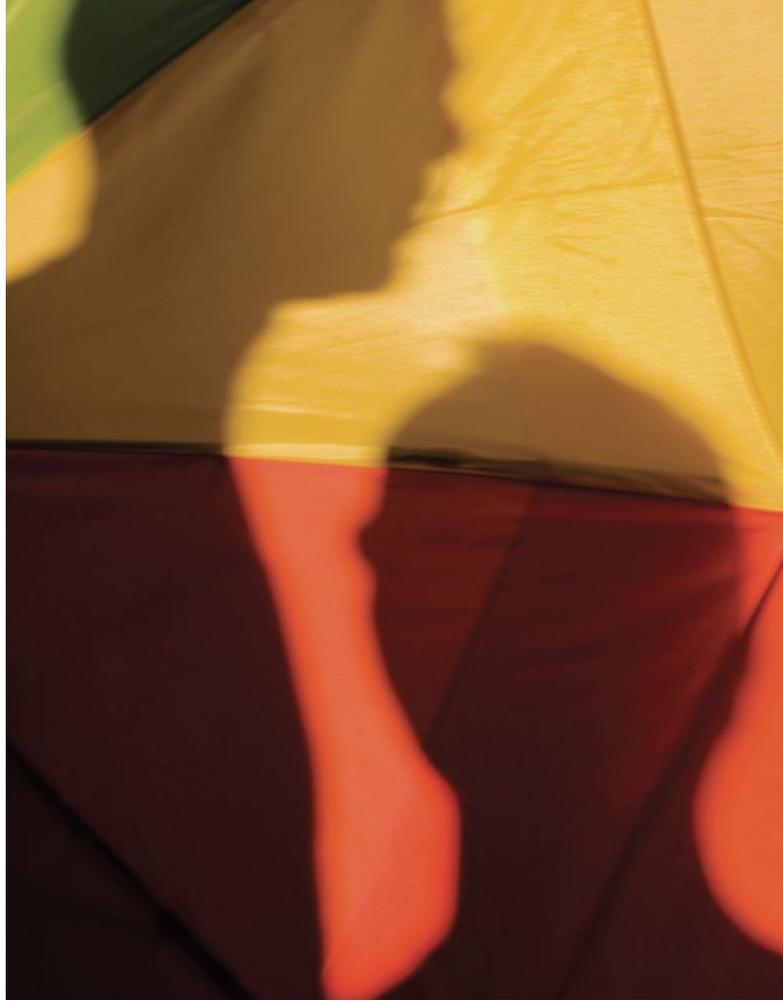
정의 · 진리의 바른 길이 혼돈과 공허와 어둠의 문제상황을 질서와 채움과 밝음의 해결된 삶으로 인도하는 유일한 길임을 믿습니다.

특별히 수많은 현장 실무경험을 통해 학습하고 성장한 진리와 정의에 대한 믿음으로 약화된 노사관계를 회복 · 성장시키는 바른 길로 의뢰인과 함께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상대적 당파성의 원칙에서 보편적 타당성의 원칙으로”

아이앤에스 법무법인
노사관계개선연구소

Telephone 02 2183 2700 www.ins-lab.co.kr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707-34 한신인터밸리24 동관19층



동성애는 하나의 '가시'

손봉호 (대표주관)

성경을 절대적인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기독교인들이 오늘의 세계에 당면한 가장 난처한 문제 가운데 하나가 동성애가 아닌가 한다. 구약 성경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도 분명히 동성애를 큰 죄악으로 보고 있다. 거기다가 비기독교인들 상당수도 동성애는 미풍양속에 어긋나고 자연스럽지 못하다 하여 역겨워하며, 순수하고 정상적인 사랑이 아니고 동성애자가 늘어나면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것과는 다른 형태의 가정이 생겨날 것이라 하여 반대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동성애자들을 비도덕적인 것으로 보지 않을 뿐 아니라 마땅히 보호해야 할 소수자로 취급하고, 그들을 차별대우하는 것은 장애자의 인권을 무시하는 것 못지않게 정의에 어긋나고 시대착오적이라고 비난한다.

거기다가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하는 것은 기독교 안에서도 동성애를 인정하는 교단과 신학자들이 있고 동성 간의 결혼을 허용할 뿐 아니라 동성 결혼식을 주례하며 심지어 동성 간 결혼한 사람들이 성직을 갖는 것도 허용하는 교단이 있다는 사실이다. 마치 살인을 정죄하고 금지하듯 기독교 교파나 신학자들이 모두 동성애를 반대한다면 그나마 입장 설정이 쉬울 텐데 그렇지 않으니 동성애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처신이 더욱 난감해지는 것이다.

동성애를 인정할 것인가 반대할 것인가는 주로 동성애가 선천적인가 후천적인가 하는 것에 달려 있다고 생각한다. 만약 동성애가 선천적이라면 그런 경향을 가진 사람들을 비판할 수 없다. 자신들의 책임이 아닌 것에 대해서 비난받는 것은 억울하다. 칸트가 주장했듯 모든 당위(當爲 = oughtness) 혹은 책임은 가능성을 전제한다. 김씨가 날지 못한다 하여 그를 비난할 수는 없는 것이다. 비록 그것이 자연스럽지 못하고 비정상적이라 하더라도 동성애가 선천적인 원인에 의한 것이라면 아무도 그것을 비난하거나 비판할 수 없다. 그것은 여자를 차별대우하는 것 못지않은 잘못된 것이다.

동성애를 반대하는 입장은 동성애가 후천적이란 전제에 근거한다. 비정상적인 양육, 좋지 못한 영향, 잘못된 문화, 건전하지 못한 상상 등 비유전적인 원인 때문에 생겨나는 성향이라고 보는 것이다. 마치 도박에 중독이 된 것같이 스스로도 제어할 수 없는 비정상적인 충동에 사로잡힌 사람들로 취급하는 것이다. 도박 중독자는 스스로를 제어할 수 없지만 그렇게 된 것에 대해서는 자신이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다. 동성애도 그와 비슷하다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아직도 이 문제가 확실하게 해결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심리학자들 가운데도 의견이 엇갈린다 한다. 사회에 따라서 동성애자의 수가 다른 것을 보면 사회문화적 요소가 작용하는 것이 사실인 것 같다. 동성애를 자연에 어긋나는 것으로 취급한 과거에는 동서를 막론하고 동성애자가 없었거나 거의 없었다는 사실, 영국 같은 나라는 청소년들을 성별로 따로 수용하는 기숙사가 많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보다 동성애자가 많다는 사실 등을 고려하면 동성애가 상당할 정도로 후천적이란 주장이 맞는 것 같다. 그러나 동성애는 생물학적인 현상이라고 주장하는 전문가들도 상당수에 이르기 때문에 비전문가들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

그런데 만약 동성애가 선천적이란 것이 확실하다면 교회는 어떻게 이에 대처할 것인가? 동성애를 죄악시하는 성경을 비과학적이고 케케묵은 편견으로 가득 차 있다고 무시해 버릴 수 있겠는가? 그렇게 하면 성경의 다른 가르침도 그 권위를 상당할 정도로 상실하게 될 것이고, 복음의 기본 요소들도 상대화되고 말 것이다. 교회가 심각한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

또 하나의 대안은 여자는 기도나 예언을 할 때 반드시 머리에 무엇을 써야 한다는 고린도전서 11장의 지적처

럼 성경의 동성애 금지도 그 시대의 특수한 상황을 반영하는 것으로 취급하는 것이다. 그 시대에는 금지했지만 오늘날은 허용해도 괜찮다고 해석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런 해석은 별로 자연스럽지 못하다. 오늘날 여자들은 중요한 행사에 반드시 머리에 무엇을 써야 한다는 주장은 찾아보기 힘들지만 동성애가 역겹다는 사람들은 아직도 많다. 그러므로 그 두 가지를 비슷한 것으로 취급하는 것은 자연스럽지 않다.

그보다 조금 덜 부자연스런 해결은 동성애를 바울 사도가 가졌던 '육체의 가시'(고후 12:7)와 비슷한 것으로 취급하는 것이다. 바울의 가시가 무엇이었는지 분명하지는 않지만 적어도 그것은 고통스러운 것이었고 바울이 원하지 않았던 것임은 분명하다. 그것을 제거해 달라고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그의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았고 바울은 일생동안 그 가시를 육체에 가진 채 살아야 했다.

만약 동성애가 선천적이고 그리스도인이 그런 경향을 가지고 태어났다면 그는 그 충동이 요구하는 대로 동성과 결혼하거나 성관계를 가질 것이 아니라 바울이 육체의 가시를 그대로 가지고 고통을 참은 것처럼 그런 성적 욕구를 억제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주위의 다른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동성애자들을 정죄하거나 비정상적인 사람들로 차별대우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통스러운 육체의 '가시'를 참고 견디는 사람으로 동정하고 이해하며 위로해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동성애가 선천적이라면 성경의 권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대안은 이것밖에 없지 않을까 한다. 그리고 동성애의 원인이 확실하게 밝혀지지 않은 지금이라도 그리스도인들은 동성애자들을 정죄하고 역겨워하기보다는 그들의 고통에 동정하는 태도를 가져야 하지 않을까 한다.



손봉호 본지 대표주관.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이사장. 서울대에서 영문학을 전공하고 암스테르담자유대학교대학원에서 철학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한국외대, 서울대 교수를 거쳐 동덕여대 총장과 세종문화회관 이사장을 역임하였다. 서울대 명예교수, 고신대 석좌교수이며 나눔국민운동본부 대표로 섬기고 있다.

Contents

WORLDVIEW · AUGUST · 2014

WORLDVIEW

2014년 08월호 WORLDVIEW 통권 170호



표지인물
김기원

〈월드뷰〉는 우리 사회에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문화가 확산되기를 소망하며 기독교학문연구에 뿌리를 두고 발행하는 기독교 세계관 전문잡지입니다. 일상 속 깊이 기독교 세계관의 뿌리를 내리기 위해, 그리고 더 많은 이들에게 기독교 세계관을 소개하기 위해 무료로 배포하고 있습니다. 이 일에 뜻을 같이하는 분들의 후원을 기다립니다.

후원 국민은행 602-01-0667-971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COVER STORY

06 커버스토리 세계관, 그러니까 삶이에요 _김기원

SPECIAL

14 기획칼럼 성소수자의 자긍심은 사랑할 수 없나? _김한나

19 기획칼럼 동성애, 너와 나를 인정하는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_길원평

24 기획칼럼 동성애에 대한 기독교적 관점 _이상원

COLUMN

02 대표주관 동성애는 하나의 '가시' _손봉호

30 나의 믿음, 나의 작품 Cantata “강하고 담대하라” _김광순

CULTURE

42 불편레시피 세계관 운동, 기독교윤리실천운동(기윤실)과 함께

52 유머 애매한 전치사 _손봉호

BOOK REVIEW

34 서평 삶을 위한 신학: 모든 이를 위한 기독교 신학 입문 _박종진

38 서평 광장에 선 기독교: 공적 신앙이란 무엇인가? _장수영

NEWS

44 기독교미디어아카데미 소식 2014년 60시간 영화제

53 사무국 뉴스

※ 〈월드뷰〉는 다양한 관점을 소개하여 이 땅의 크리스천에게 바른 안목을 제시합니다.



좌측의 QR코드를 이용하면 스마트폰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원문보기는 네이버 블로그 <http://cworldview.blog.me>에서 가능합니다.

사단법인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는 삶과 학문의 전 분야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영광이 확인될 수 있도록 제 분야에 대한 기독교적인 관점을 정립하고 이를 확산시키며 이와 병행하여 실천을 진작시키고자 하는 신앙과 학문의 공동체입니다.

대표주관	손봉호
발행인	김승욱
편집인	신효영
편집위원	김지원, 권태경, 박영주, 백승현, 송태현, 양성만, 이상무, 이우성, 장수영, 전요섭, 조영길
자문위원	신국원, 이상정, 조성표, 최현일
교정/교열	김선경
사진	신효영
기자	김소라
디자인	황정희
제작	주식회사 세상바로보기
인쇄	완산정판사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전화 02-754-8004
팩스 0303-0272-4967
주소 서울시 용산구 이촌로 2가길 5 (한강르네상스빌 A동 102호)
홈페이지 www.worldview.or.kr
페이스북 facebook.com/cworldview
블로그 <http://cworldview.blog.me>
모바일매거진 m.worldview.or.kr

세계관, 그러니까 삶이에요

☞ 인터뷰어_김승욱 (중앙대 교수, 발행인)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에서 부이사장으로 봉사하시는 김의원 백석대 부총장이 지난 6월 9일에 은퇴식을 가졌다. 본지 발행인 김승욱 교수와 은퇴후의 사역과 세계관 운동에 대해 나누었다.



김의원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부이사장)
 송실대학교를 졸업하고 총신신대원을 수료한 후, 웨스트민스터신학교에서 목회학 석사(M.Div.), 구약신학 석사(Th.M.)를, 뉴욕대학교에서 고대 근동어과 히브리어 전공(현 히브리어와 유대학과) 철학박사(Ph.D.)를 취득하였다. 이후 뉴욕중부교회를 설립 및 담임하였으며,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교수를 거쳐 제2대 총장으로 섬겼으며, 백석대학교 서울캠퍼스 부총장이자 구약교수로 섬겼다. 현재 사단법인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부이사장이자 새생명교육공익재단 이사장, 동탄사랑나눔재단 이사장, 한미문화협회 이사장, 아시아신학교육협의회(ATEA) 대학원장이다.

김승욱 : 지난 6월 9일 퇴임식을 가지셨는데요, 축하드립니다. 세계관동역회의 손봉호 이사장님께서 축사에, 퇴임하면 더 바빠질 것이라고 예언(?)하셨는데, 앞으로의 계획이 궁금합니다.

김의원 : 오늘 아태아대학원 원장에 취임했어요. '아태아(ATEA)'는 Alliance of Training and Education in

All Nations의 약자로, 대학원은 아태아 국제학 대학원(ATEA Institute of International Studies, 이하 AIIS)입니다. 초교파로 저처럼 은퇴한 교수나 목회자들이 신학을 교육하고 평신도 지도자를 양성하는 곳입니다. 교육적 측면에서, 선교지는 두 개의 큰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선교사들의 학위가 선교학에 편중되어 있다는 것

과 사역자들 위주로 파송되었다는 것입니다. 목회자 양성과 교회개혁에만 집중하여 현지 평신도 지도자들이 제대로 육성되지 못해 교회 자립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의 도움으로 교회당은 세워졌는데 교인들이 없고, 학교 건물은 세워졌는데 학생들이 없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아태아는 작은 지역공동체의 중심이 되어 다음 세대의 목회자와 더불어 평신도 지도자를 키우기 위해 신학교, 직업학교, 초·중·고등학교를 세우는데 최선을 다하려 합니다.

이러한 선교전략은 세계관 문제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복음이 세계관을 바꾸지 못하면 신학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좋은 예가 한국 교회입니다. 성경적 개념이 유교의 가부장적 세계관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니, 많은 유익한 제도들이 가부장 제도와 함께 무너져버렸지요. 선교지에서 이런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ATEA/AIIS와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가 MOU를 체결하여 동역하기를 원합니다.

김승욱 : 기독교학문연구회(기학연) 시절부터 지금의 세계관동역회까지 오랫동안 동역하셨습니다. 약 20년 전부터 기독교학문연구소 소장으로 계시다가 기학연 이사장도 하셨지요. 퇴임식에서 서현교회 김경원 목사님이 교수님은 구약학자인데 마치 실천신학자 같다고 하셨지요? (웃음) 이번 은퇴기념 논문집 제목("언약과 교회")에서도 알 수 있듯이, 구약학자이시면서 실천신학적 세계관 운동을 많이 하셨습니다. 세계관 운동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에 대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김의원 : 저는 미국 웨스트민스터신학교의 Harvie Conn(한국명: 간하배, 한국에서 12년 간 선교하면서 총신대 교수 역임) 교수로부터 세계관을 배웠습니다. 그는 창세기 1장의 창조명령과 마태복음 28장의 위임명령을 연결하여 "언약명령"을 주창하였지요.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 속에 복음의 씨앗을 심는 주체입니다. 하나님은 세상 속에 복음의 작은 씨앗으로 아브라함 가족 공동체를 세우셨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 다윗의 국가 공동체로 성장하였고, 종래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 교회 공동체로 확장되었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가족, 민족, 국가와 교회는 말씀과 삶이 어우러진 공동체입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는 세상과 교회를 구분하는 이원론적 사고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는 세계관 개념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삶 속에서 말씀의 적용이 사라지고, 말씀을 배우는 예배 공동체와 이를 적용하는 삶의 공동체가 구분되면서 성숙이 분리된 것입니다. 교회와 관련되면 거룩한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것은 세속적인 것으로 여깁니다. 잘못된 세계관은 신학을 변형시킬 뿐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도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저는 여러 번에 걸쳐 패러다임의 변혁을 겪었습니다. 한번은 미국의 목양 현장에서 강권적으로 성경공부 그룹을 바꾸게 하셨는데, 신학은 상아탑이 아니라 목회 현장에서 꽃피워야 한다는 것을 체득하였습니다. 교인들의 삶에서 말씀이 드러나야 합니다. 말씀과 삶은 분리될 수 없습니다. 주일만 거룩한 것이 아니라 나머지 6일도 거룩합니다. 교회에서의 삶만 거룩한 것이 아니라 가정, 사업, 학교, 사회에서의 모든 것이 거룩해져야 합니다.

또 안식년에 미국 텍사스의 달라스신학교를 방문하여 몇 분의 교수들께 양해를 구하고 강좌를 들으면서, 성경적 패러다임을 체득하게 되었습니다. ‘아, 성경은 이렇게 가르치는 거구나!’ 강의는 완전히 성경 중심인데 초점은 현장에 맞추어져 있었습니다. 즉, 성경을 강해 중심으로 가르치면서 세상에 적용시키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론 중심이었는데, 그곳은 성경을 기초로 세상을 보게 하더군요. 귀국 후 구약의 이론보다 성경을 기초로 한 언약신약을 가르치면서 학생들에게 실천신학적 구약학자라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김승욱: 저희가 기독교 세계관 운동을 시작하던 30년 전에 비해 기독교 세계관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예수전도단에서도 이것을 가르치기 위해 제주도에 열방대학을 만들었다고 하더군요. 합신대에서는 송인규 교수, 이승구 교수 등이 이 과목을 가르치고 있고, 최근 고신대에서도 기독교 세계관 과정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부총장으로 계셨던 백석대에도 세계관 과정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총장으로 계셨던 총신대 신대원에도 기독교 세계관 과정을 만드셨는데, 요즘은 열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복음을 삶에 적용하는 기독교 세계관 교육을 활성화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김의원: 총신대학교에 부임한지 얼마 되지 않아 교무처장을 맡으면서 세계관을 필수과목에 넣고 제안했더니 세계관이 뭐냐고 묻는 분들이 있었어요. 기독교 철학보다 포괄적 의미로, 일종의 패러다임이자 렌즈라고 답하였습니다. 렌즈가 잘못되면 성경 이해가 잘못 되기 때문입니다. 당시 우여곡절 끝에 세계관 교육을 선택과목으로 개설하였고, 많은 학생들의 호응을 얻었습니다. 백석대학교에도 세계관을 선택과목으로 개설하려 했는데 약간의 반대가 있어서, 신학대학원 입시에 세계관에 관련된 책들을 미리 읽게 한 뒤 논술시험을 치르게 하였습니다. 신학을 배우기 전에 성경적 세계관이 형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지난 세월 동안 학자들 중심으로 세계관 교육이 이루어지면서 세계관은 어렵다는 편견이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시대 변화도 한 몫 하였습니다. 논리성이 강하던 모더니즘시대에서 감성이 강화된 포스트모던시대로 바뀌었는데도, 그러한 흐름에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세계관을 감성적 부분에서 접근하면 좋을 듯합니다.

예를 들어 방학 동안 개설되는 수많은 청소년 캠프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청소년 캠프 지도자들을 훈련시켜 그들을 통해 세계관을 가르치게 하는 것입니다. ‘세계관’은 하나님과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쓰지 않아도 전달이 가능합니다. 세계관은 인식 과정의 필터 내지는 렌즈의 역할을 합니다. 영상미디어를 활용하여 세계관에 근거한 지·정·의로 구성된 역동적인 프로그램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교수들은 이런 사역에 능하지 못합니다. 똑같은 본문, 내용이라도 교수들보다는 목회자들이, 목회자들보다는 청소년 사역자들이 훨씬 강력하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세계관 운동도 교수들이 주도하다보니 이론적이고, 학구적으로 흘러가게 된 것입니다. 오히려 세계관 운동을 3박 4

일, 4박 5일의 과정으로 만들고, 지·정·의가 함께 엮어지는 운동을 펼침으로 학생들을 위한 캠프에서 활용하도록 한다면 어떨까요?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야 하는데 교수들의 눈높이는 항상 제대로 교육받은 소수에게 한정되는 약점을 지닙니다. 이것은 신학교뿐 아니라 교회학교 교육, 세계관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듣는 대상에 맞춘 세계관 강의가 있어야 품성의 변화 속에서 사람이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세계관이 어떤 외곽을 감싸는 큰 틀로 주어지고, 감성에 기초된 영상 미디어를 통해 복음이 전달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의 세계관 운동도 강의실 중심에서 초급과정의 경우 캠프 과정으로 바뀌주고, 그 다음에 강의를 듣게 해야 할 것입니다. 또 강의도 일방적인 것보다는 주제를 놓고 세미나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예를 들면 청소년들의 성문제, 대학생들의 진로문제, 청년들의 사회문제도 함께 이야기하면서 성경적으로 나아가도록 하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세계관이라는 단어를 전혀 쓰지 않고도 세계관을 삶의 바탕으로 삼아 복음이 들어오게 만드는 것이죠. 가르치면 변한다고 하지만, 실제적인 변화는 강의가 아닌 삶에서 일어납니다. 신학도 교리와 삶이 떨어져 나가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지요. 세계관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삶이에요.

김승욱: 요즘 한국교회가 질타를 많이 받고 있는데, 그 원인도 여기서 찾을 수 있겠지요?

김의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의 교회는 말씀 공동체이자 삶의 공동체였습니다. 말씀과 삶이 함께 있었어요. 이런 교회의 모습이 2~3세기까지 유지되다가 4세기에 기독교가 공인되면서 교회당 중심의 예배 공동체로 변형되기 시작합니다. 삶이 이원화되기 시작하죠. 한국 선교사들이 세운 초대교회도 말씀과 삶이 병행하는 공동체였습니다. 그런데 일제 말, 6.25를 거치면서 성도들의 성숙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값싼 은혜가 강조되면서 예수만 믿으면 복 받는다는 기복신앙이 들어옵니다. 삶과 신앙이 별개로 여겨지고, 복음이 치유나 부귀를 위한 방편으로 변형되면서 성숙의 이원화가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또 교회 성장주의가 들어오면서 삶보다는 세속적 가치 기준이 강조되었습니다. 그러나 다행이고 감사한 것은 젊은 사역자들이 작은 교회를 중심으로 삶의 공동체를 회복해야 한다고 외치며 이를 실행하고자 애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공동체로 만들어가는 교회는 시간이 걸리고 힘들지만 서서히 성장하게 됩니다. 프로그램을 도입한 교회는 교인을 구경꾼으로 전락시켜 교회를 쇼핑하게 만듭니다. 좀 더 나은 시설, 프로그램을 좇다가 믿음마저 저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공동체적 삶을 추구하는 교회는 신실한 성도들로 남게 되며, 섬기는 교회를 건강한 교회로 만들어 갑니다.



Editor's Comment

고대 근동어를 전공했지만 실천신학에 관심을 갖게 된 두 가지 사건(1)
 하나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설립, 책임지게 하셔서 목회 현장을 통해 “아, 실천신학이 신학의 꽃이구나. 여기서 꽃 피우지 않으면 신학은 죽은 것이구나.”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주경신학은 모든 신학의 뿌리입니다. 그래서 저는 구약이 최고라고 생각했습니다. 구약 연구에는 여러 영역이 있습니다. 해석학, 원전 연구, 구약 역사와 배경, 고고학 등등. 특히 히브리어를 알기 위해서는 관련된 수많은 셈족 언어(우가리트어, 아람어, 아카디아어 등)를 연구해야 합니다. 많은 학위과정이 언어를 공부하고 고대 문헌을 뒤지지만, 어떻게 해석해야하는가에 있어 수많은 학설만 난무할 뿐 정답은 없습니다. 공부할수록 의식이 많아지고 신앙도 바래지죠. 그러다보니 이건 아니다 싶었고 묵화하면서 신학의 방향이 바뀌게 되었죠.

김승욱 : 그러니까 성장주의가 들어오면서 한국 교회가 공동체성을 잃게 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80년대에 소위 말하는 강남 5개 교회가 급성장할 때 대교회주의에 대한 비판과 토론이 활발했습니다. 결국 그 교회들이 한국을 대표하는 교회들이 되면서 대형교회에 대한 비판은 힘을 얻지 못했습니다. 대형교회의 프로그램이나 시설 등이 사람들 사이에 묻혀 편하게 다닐 수 있어 더 많은 신자들이 몰리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성장주의 때문이라기보다 교인들이 관객처럼 된 것이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김의원 : 저는 대교회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다만, 대교회의 목회 철학이 문제입니다. 찬양, 어린이 학교, 설교 등이 프로그램화되면서 교인들은 좀 더 나은 시설과 프로그램을 좇아 여기저기 기웃거리는 소비자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예배를 드리 기보다는 구경하는 소비자가 되어 프로그램 중심으로 교회를 쇼핑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지요. 성경적으로 보면 교인은 목회자의 동역자입니다. 레위기를 보면, 제사를 드릴 때 피를 거두어 단에 뿌리고 각 뜯은 제물을 제단에 올리는 것은 제사장의 직무이지만, 제물을 죽이고 가족을 벗기고 각을 뜨는 것은 제사자의 몫입니다. 곧 제사자는 제사장의 동역자였습니다. 현대 교회에 영적 쇼핑의 개념이 들어오면서 교인들이 소비자와 구경꾼으로 전락하였습니다. 천명 규모의 교회에서 백 명만 움직여도 교회 운영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현재 제도에서는 나머지 9백 명은 전부 한 달란트처럼 땅에 묻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저는 그것이 대교회의 실수라고 생각합니다.



Editor's Comment

고대 근동어를 전공하였지만 실천신학에 관심을 갖게 된 두 가지 사건(2)

다른 하나는 제가 미국에서 담임하던 교회의 교인이 모범으로 보여준 선교사역입니다. 여신도 한 분이 중국 연길로 들어가서 장애자들을 위해 사역하며 그곳의 젊은 목회자들과 영적으로 깊은 교제를 나누면서, 저도 중국의 신학교 교수들을 비밀리에 가르칠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영하 20도의 추운 겨울 새벽 외부에 있는 화장실에 불일을 보러 나갔는데 어디선가 웅얼대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웠는지 얼른 방으로 되돌아왔습니다. 다음 날 확인해보니 그 추운 날씨에 중국 할머니들과 할아버지들이 가마니를 뒤집어쓰고 교회 담벼락에 앉아 기도하는 소리였습니다. 또 교회건축에 드릴 헌금이 없어 벽돌 두 장을 들고 4km를 걸어오신 할머니들, 반지 빼고 머리 깎고 치마를 벗어 내놓는 그들의 열정 앞에, 그리고 그 일들을 이루신 하나님 앞에 절로 고개가 숙여졌습니다. 중국에서 저는 조부모님의 열정과 부모님의 헌신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계속 중국을 섬기면서 여러 지역에 학교를 세우고 지도자들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신학은 현장과 공존해야 합니다. 자신이 양육하는 영적 자녀가 있을 때 신학은 도움이 됩니다. 현장을 떠난 신학은 하나님을 작은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립니다. 때로 신학자들이 하나님을 신학 속에 가둬버리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는 신학보다 훨씬 큰 분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과 나와의 개인 문제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개인들의 연합이 아니라 작은 공동체 연합입니다. 초대교회는 작은 공동체였습니다. 성경에 보면 “누구누구의 집에 있는 교회”라는 어휘가 자주 등장합니다. 옛날 교회는 여러 가족 단위의 집합체였고, 오늘날에도 건강한 교회는 사랑으로 하나된 공동체, 셀 혹은 목장 공동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열 명씩 천 개의 공동체가 모이는 것이 만 명이 하나로 모이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모두가 동역자로서 함께 섬기는 교회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 명이 모이면 일부만 일하지만, 열 명이면 모두가 일해야 합니다. 교회가 커질수록 교인들을 키워서 그들로 다른 이들을 섬기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이 에베소서 4장이 말씀하는 바입니다. “성도를 구비시키면”(개정, 온전케 하여) 그들이 온갖 봉사의 일을 담당하면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져 가게 됩니다.

김승욱 : 대형교회들도 구역, 셀, 순, 다락방, 목장 등 다양한 용어를 사용하면서 공동체를 중요하게 여기기는 합니다. 그렇다면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대형교회들은 서로를 잘 모른다고 해서 강권적으로 공동체를 구성해주고 섞어주는데, 그게 지금 말씀하신 것과 비슷하지만 바람직한 것은 아니네요.

김의원 : 그것은 생명체가 아니지요. 생명체는 성장하면서 분열됩니다. 저는 신학생들에게 교회를 개척할 때 교회당을 마련해 놓고 찾아오는 교인들을 기다리지 말라고 합니다. 먼저 자신의 가정을 하나의 셀로 만들어 아들 친구가 놀러 왔다가 구성원이 되고 뒤이어 그 식구들을 데려오게 합니다. 계속해서 구성원이 늘어나면 새로운 리더를 세워 분리하고 새로운 셀을 시작하도록 합니다. 이런 식으로 생명체처럼 분열하는 것이지요. 요즘은 감성 중심이다 보니 어느 누구도 일방적으로 가르침을 받고 싶어 하지 않아요. 오히려 리더는 질문을 던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구성원이 자기의 고충을 입 밖으로 꺼낼 수 있도록 리더가 먼저 자신의 약점과 실수들, 넘어진 것들을 드러내 보입니다. 리더가 자신을 노출하는 만큼 구성원들도 자신들을 드러내게 됩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서로에 대한 신뢰가 쌓이게 되면 부부문제, 자녀양육, 물질문제 등 삶의 깊은 이야기들을 나누게 되고, 구성원들은 진흙처럼 단단하게 다져져 갑니다. 이렇게 자라난 그룹은 영적인 자녀를 낳는 것처럼 분리됩니다. 세계관도 이런 식의 교체와 삶에 관한 이야기를 갖춰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승욱 : 초반에 은퇴 이후 준비하시는 사역에 대해 말씀하셨지만, 그 외에 여러 가지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잠시 소개해 주십시오.

김의원 : 하나는 한미문화협회라고 외교부 통상부 산하의 법인입니다. 설립취지는 미국 워싱턴 주 신호범 상원의원을 중심으로 1.5세와 2세 정치 지도자를 양성하고 한국인 입양아 학교를 세워주는 것입니다. 지난 5월 이 단체의 이사장직을 맡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사역에 디아스포라까지 포함시키려 합니다. 지난 몇 년 동안 한국 대학생들을 미국 워싱턴 주 의회와 시애틀 주변의 시정부에 인턴으로 보내어 많은 것을 배우게 하였는데, 한국과 미국 양쪽에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앞서 말씀드린 아태아 대학원(ATEA/AIIS)으로 전 세계를 교구 삼는 사역입니다. 아태아는 선교지의 교회 지도자들뿐 아니라 평신도 지도자들을 교육·훈련하고, 복음과 더불어 빵도 주는 기술학교 설립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 도처에 초·중·고교를 세워 후대의 지도자들을 양육하고자 합니다. 현재 몇 개 지역에 대안학교 설립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한국 교회는 한 세대가 가기 전에 매우 약화될 것입니다. 그러나 위기는 또 다른 기회입니다. 이제 우리는 다음 세대가 기독교 황금시대를 이끌도록 훈련시켜야 합니다. 최근 소수이지만 여기저기서 교회 공동체를 회복하여 교회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자고 외치기 시작한 것은 매우 고무적입니다. 교회 존재의 목적과 소명이 무엇인지, 또 사명과 헌신이 무엇인지를 심각하게 고민한다는 것은 교회가 제 길로 들어섰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큰 교회들의 이야기입니다. 작은 교회들, 교회 공동체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 소망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김승욱 :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하늘소리 오케스트라 아카데미

Heavenly Sound Orchestra Academy

하늘소리청소년오케스트라는 2006년 서울·경기 지역의 현악기를 처음 대하는 아이들이 대부분인 30여명의 홈스쿨러를 대상으로 홈스쿨 선교사인 윌링 가족 5명의 열정적 헌신으로 세워졌다. 2009년에는 현 지휘자인 이경원 감독에게 오병이 어의 그림과 함께 지휘봉이 넘겨졌는데, 오병이어는 정당한 보수를 바라지 않는 교사들과 부모들의 은사적 기부를 상징한다.

원 창시자의 비전대로 아카데미로서의 음악적 교육의 성장을 멈추지 않고 역동적으로 진행되어온 결과 현재 60여명의 프리오케스트라와 메인오케스트라 그리고 앙상블 팀이 운영되고 있다.

하늘소리오케스트라는 매년 2년의 정기공연을 가져왔으며, 최근에는 마포아트센터에서 17회 정기연주회를 성황리에 마쳤다. 하늘소리오케스트라는 부르는 곳에 기쁨으로 달려가 연주하는 자원봉사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다. 하늘소리오케스트라의 교사들과 부모는 무엇보다 단원들의 음악적 성장이 계속되도록 돕고, 음악이 아이들의 삶의 좋은 도구가 되어 실제적인 삶의 영역에서도 영향을 미치기를 바라며, 또한 그들의 달란트를 필요로 하는 이웃들과 나누는 소명자들이 되기를 바라고 있다.

음악코치



Director
이경원



Violin
안지연



Viola
이철민



Cello
나채원



Flute
나채원



Pre-Orchestra
이동혁

오디션 안내

하늘소리오케스트라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단, 홈스쿨 오케스트라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하늘소리의 질서와 아름다운 권위 그리고 기독교 세계관에 동의하는 분과 함께 합니다.

문의 네이버 카페 "하늘소리오케스트라"(cafe.naver.com/hsoy) 백혜선(010-5790-8754) 9월초 학기 시작-8월말까지 지원 가능

하늘소리 Youth Choir 단원 모집

하늘소리유스콰이어는 2013년 12월 창단되었고 청소년들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삶을 생각하며 연습과 연주를 통해 하나님 드러내기를 소망하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지원자격 현 초등학교 3학년~고등학교 3학년 모집파트 소프라노,알토,테너,베이스 문의 김문영(010-4238-8779)

WORLDVIEW SPECIAL

동성애 찬반?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동성애. 동성애가 이슈화되며, 관심거리 혹은 문제라고 칭하면서 우리는 정말 얼마나 동성애에 대해 잘 알고 있을까요?

<월드뷰> 8월호에서는 동성애에 대한 다양한 관점에서 그 답변을 준비했습니다.

좀더 깊이 있게 생각해 봅시다!



성소수자의 자긍심은 사랑할 수 없나?

김한나 (카이로스 연구원)



편집자주. <월드뷰>에서는 다양한 의견을 소개합니다. 이는 본지의 견해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

아직도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동성애는 낯선 것이다. 15년 전 커밍아웃 한 홍석천 씨가 거의 유일한 동성애자로 기억되고 있으니 실제로 동성애자와 마주하게 된다면 그 당혹감은 얼마나 클까. 그러나 우리 주변에 동성애자가 없는 것은 아니다. 드러내지 않았을 뿐 평범한 이웃으로, 친구로 지내고 있을 수 있다. 동성애자들이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침묵하며 벽장 속에서 지내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 사회의 차별과 혐오의 시선 즉, 평범한 일상에서 마주하게 될 격렬한 반응 때문이다.



시위는 어떻게 축제가 되었나

동성애는 근대적 식별 범주이다. 즉, 다른 근대적 기획들과 마찬가지로 그 의미와 대상에 있어 다양한 주체들 간의 치열한 경합 과정을 거쳐 구성된 문화적 범주들의 담론적 효과라는 말이다.¹⁾ 사실 동성애 행위는 고대부터 있었다. 그러나 근대 이전에는 일시적인 일탈이나 유희적인 행위에 불과할 뿐 인간 정체성을 규정짓는 특징으로 여기지 않았다. 동성애를 병리적인 것으로 규정한 의료담론이 발전한 것이나, 동성애자를 정체성에 기반을 둔 공통의 집단으로 가정하여 통제하기 시작한 것 모두 20세기부터이다.²⁾

이 시기의 인권 운동가들은 동성애를 질환으로 규정한 정신의학적 관점에 도전하며 동성애자들의 정신적 고통은 정신의학이 아니라 정치적 개입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³⁾ 동성애자들은 더 이상 이성에 중심의 세상과 의료 전문가들이 자신들을 병리화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다. 그들은 공적 영역에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면서 수치스럽게 여기던 자신들의 감성을 하나의 존재 방식으로 공론화시켰는데, 그 분기점이 된 사건이 바로 1969년 스톤월 항쟁이다.

스톤월 항쟁⁴⁾은 성소수자들이 차별에 대응하도록 자긍심(Pride)을 일깨웠다. 이성애 중심 사회에서 일방적으로 통제받던 동성애자들이 스스로 존재를 드러내고 사회적 편견과 혐오에 맞서 싸우기 위해 일어나기 시작했다. 이 스톤월에서 자긍심 퍼레이드(Pride Parade)가 유래하게 되었는데, 차별받고 소외당했던 성소수자들이 자긍심을 고취하고 사회의 인식 개선 및 인권 보장을 정당하게 요구하며 대로를 행진(parade)하는 행위이다. 오늘날 전 세계 수많은 도시로 확산되어 진행되고 있는 이 퍼레이드는 화려한 축제이면서 동시에 성소수자 인권 증진을 요구하는 시위이다.



자긍심(Pride)은 혐오를 당황하게 한다

우리나라에서도 매년 자긍심 퍼레이드가 개최되고 있다. 2000년에 처음 들어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이 축제는 성소수자뿐 아니라 성소수자의 인권을 옹호하는 사람들, 지역민 등이 서로를 긍정하고 축복하는 일종의 사회적 상견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지난 6월, 서울과 대구에서 개최된 '퀴어문화축제'에서도 성소수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자신의 정체성을 긍정하고 드러내며 존엄과 인권을 요구하는 자긍심 퍼레이드를 가졌다. 동성애자,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등 성소수자들은 이 행사를 통해 이성애 중심의 세상에서 쓰고 있던 가면을 벗어놓고 진정한 자아를 대면하는 경험을 할 수 있다. 성적지향과 성정체성을 근거로 차별이 난무하는 억압적인 세상에서 일년에 단 하루, 축제의 형식을 빌린 안전한 공간에서 진정한 자신을 열어 숨겨두었던 매력을 뽐낸다. 이날만큼은 자신의 몸과 섹슈얼리티에 대한 무한한 긍정이 허락되는 것이다. 이날의 해방감과 자기긍정에서 얻은 자긍심을 기억하며 남은 364일을 산다는 자기 고백들이 이어

지고, 며칠 후에는 사랑하지만 드러낼 수 없는 자아 때문에 상사병을 앓기도 한다.

이 때문에 성소수자들의 자긍심 퍼레이드에는 연민이나 동정이 들어설 여지가 없다. 혐오세력이 당황하는 지점은 바로 이것이다. 고통과 자기비하로 몸부림쳐야 할 성소수자 대신에 뜻밖에도 자기 긍정의 에너지로 가득 찬 전인격체를 마주했을 때의 당혹감 말이다. 자긍심 앞에서 혐오세력의 동정어린 시선과 원색적 비난은 그 목적과 대상을 잃고 만다.

보수 기독교 세력과 극우 보수주의자들은 올해 열린 자긍심 퍼레이드를 조직적으로 방해했다.⁵⁾ 이들은 선정적인 혐오와 저주 발언을 쏟아내며 연중 단 하루뿐인 성소수자의 날을 집요하게 막아섰다. 길바닥에 드러누워 퍼레이드 차량의 이동을 막고, 통성기도를 가장하여 소리를 지르기도 했다. 심지어 불특정 다수에게 매질을 가하고 욕설을 내뿜었다. '세월호 추모 콘서트'를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동성애 혐오로 가득한 집회를 열어 참가 피해자들

과 유가족들, 그리고 상처 입은 시민들의 슬픔을 이용한 사기극을 펼친 것이다. 이날 가면을 벗은 것은 동성애자들만이 아니었다. 혐오세력은 증오의 민낯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이들의 방해로 행사가 지연됐음에도 불구하고, 일만여 명의 참가자들은 준비된 공연을 즐기면서 눈앞의 탄압과 혐오에 대항하는 즉석 피켓팅과 퍼포먼스를 하는 등 자긍심 퍼레이드 본연의 의미를 되새기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지난 수년간 볼 수 없었던 후안무치한 폭력을 목도한 것은 그 자체로 엄청난 트라우마가 되었을 것이다. 단 하루 성소수자에게 허락된 안전한 공간마저 침탈해야만 했을까? 원색적인 혐오 행동으로 그들이 얻는 것은 무엇인가?

죽도록 혐오하기?

지금 성소수자에 대한 한국 사회의 이슈는 일부 보수 기독교 혐오세력의 극단적인 여론몰이로 윤리와 도덕적 기준이 전부인 양 혐오 전선을 형성하고 있다. 이들은 우리보다 앞서 치열하게 고민하고 토론하여 동성애에 대한 시민사회적 합의를 일구어낸 나라들이 파기한 비과학적, 반인권적 자료들마저 차별과 혐오를 재생산하는데 동원하고 있다.⁶⁾ 선진국이니 무조건 따르자는 사대주의가 아니다. 비슷한 경험과 고민을 공유한 사회의 갈등과 토론을 존중하지는 것이다. 이는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역사적, 정치적 맥락을 무시한 채 조작적 정의나 지엽적인 통계를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정보는 극히 제한적임에도, 혐오집단은 동성애를 개인의 취향, 성향, 기질 내지는 특정 문화현상으로 파편화시켜 문제의 본질인 권력과 위계의 문제를 희석시키고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성애 중심주의 사회의 차별과 혐오로 탄생한 성소수자 인권운동(자긍심 퍼레이드)을 “타락한 성문화”의 원인으로 도치시키는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기독교 혐오세력의 자극적이고 극렬한 반대는 동성애자의 존재와 인권이 마치 '논쟁적인' 문제인 양 왜곡하는 프레임을 조성하고 있다. 성별, 인종문제처럼 타인의 존재는 찬반의 대상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프레임은 특히 공공영역에서 효력을 발휘하는 듯 보인다.⁷⁾ 시민의 행복을 증진하고 인권을 보장하는데 앞장서야 할 국가에 일종의 정치적 부담을 지워 반인권적 결정을 강요하는 것이다.⁸⁾ 이러한 사회적 논의와 갈등을 헌법의 가치에 맞게 적절히 다루고 중재해야 할 공적 영역인 국가는 동성애자들과 인권 운동가들의 요구에 반응하지 않고, 혐오세력들의 선정적 피켓팅에 즉각 반응하며 직·간접적으로 동조하고 있다.⁹⁾

차별을 촉구하는 자신들의 요구가 관철될 때마다 보수 기독교 혐오세력들은 승리의 성취감, 신의 뜻을 대리한다는 사명감을 강화시키고 있다.

차별과 혐오는 그 대상의 가치 혹은 정체성에 위계질서를 매기고 권력을 행사하는 정치학이다. 종종 혐오세력들은 '상식', '문화', '종교'라는 무균실을 만들고 혐오를 탈정치화시켜 그들의 증오에 절대적 권위를 부여한다. 권력과 집단의 맥락에서 벗어난 차별과 혐오는 그 문제의 접근방법과 해결방법을 개인적인 차원, 선악의 이분구도로 단순화시켜 '차별할 권리', '배제할 권리'까지 주장하게 된다. 자신의 특권적 지위에 대한 성찰이 결여된 채 타인을 색출하고 박멸하는 방식으로 지키는 신앙이 과연 바람직한 방식인지 묻고 싶다. 혐오가 기독교 신앙일 수 있는가? 혐오로 종교적 승리를 맛보는 것은 정당한가?



자긍심의 기독교적 재현

차별금지법 제정 등 그간 논란이 되었던 동성애자 관련 이슈들은 성소수자에 대한 억압과 배제를 멈추고 정상성 내부의 특권적 지위를 공유하자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 하지만 '동성애를 조장'한다는 검증되지도, 논리적이지도 않은 수사 속에 신의 이름으로 자행된 차별과 배제, 억압은 모든 사람이 마땅히 누리고 인정받아야 할 보편의 가치인 '사랑'을 저항과 투쟁을 통해 획득해야만 하는, 급진적인 정치 용어로 만들어 버렸다. 한국 사회는 동성애자에 대해 익숙하지도, 수용적이지도 않다. 한국 사회, 특히 사랑의 종교라 불리는 기독교가 다소 서툴고 어렵더라도 이 낮은 이들을 윤리적인 태도로 대할 수는 없을까? 앞선 역사와 맥락을 살펴보는 조심스러움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일까? 혐오로 인해 분절되고 왜곡된 동성애자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성소수자 스

스로 이루어온 해방의 역사가 진술하는 성소수자의 가치와 자의식을 존중하는 것 말이다. 물론 모든 기독교인들이 동성애자들과 적대 관계에 있는 것은 아니다. 기독교인인 동성애자들이 있고, 또 기독교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바탕으로 혐오와 차별에 맞서며 동성애자들의 사랑을 지지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들은 동성애자의 존엄을 인정할 뿐 아니라 기독교가 동성애자를 혐오하고 차별한다는 편견을 깨는 소수의 집단이기도 하다. 혐오일색인 한국 기독교 내 동성애 담론에서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지금의 왜곡된 프레임, 반론의 여지가 없는 획일화된 전선/담론에 주의를 환기시킬 수 있다면, 그것은 아마 스톤월의 첫 용기와 그날의 자긍심을 한번 더 요청하는 일이 될 것이다.

1) 미셸 푸코 (2004). 성의 역사: 알의 의지, 나남.
 2) 애너메리 야고스 (2012). 퀴어이론 입문. 도서출판 에이먼.
 3) 같은 책.
 4) 60년대 뉴욕에서 경찰이 게이 바를 급습하여 술을 마시거나 담수하는 성소수자들을 쫓아내고 체포하는 일은 비일비재했다. 1969년 6월 28일 경찰이 여느 때와 다름없이 뉴욕의 허름한 게이 바 '스톤월 인'을 급습하였을 때, 손님들은 뿔뿔이 흩어지는 대신 불평등과 슬로건을 외치며 시위하였다. 보다 적극적인 방식으로 존재를 드러내고 탄압과 혐오에 저항한 이날은 성소수자들이 하나의 정치세력으로 구성되었음을 가리키는 날로서 기념되고 있다. 동성애자들은 스톤월 항쟁의 집단적인 저항의 경험을 자긍심 퍼레이드를 통하여 기억한다.
 5) 퀴어문화축제 직전 '신촌 동성애 뺨스 카퍼레이드 반대 일만 명 국민대회'라는 헤드라인의 인터넷 기사가 복수의 개신교 기반 인터넷 언론사에서 복제되어 배포되었다. 이들은 이름의 선정적인 뉘앙스처럼 노골적인 말들로 동성애자들을 비난하고 나섰다. 신촌(대구) 동성애반대청년연대와 같이 행사의 성격도, 주최도 모호한 다수의 집회와 연대체가 생겨났다. 예수재단, 예스더기도운동본부, 홀리라이프 등 주요 이슈마다 반동성애 운동을 벌인 이들이 더하여 한국의 대표적인 우익단체인 대한민국어비어연합도 관여했다.

6) '동성애는 치료받아야 할 질병'이라는 혐오세력의 핵심 논거는 잘못된 주장이다. 1952년에 처음 출판된 정신질환분류(DSM)에서는 동성애(homosexuality)가 질환으로 등재되었던 적이 있었다. 하지만 지속적인 의학적, 성 과학적, 심리학적 연구들과 인권운동을 거쳐, 1990년 5월 17일, WHO(World Health Organization)는 동성애를 정신질환 목록에서 삭제하였다. 이로써 동성애를 질병이라고 주장할 의학적 증거와 지식은 없다. 성소수자들은 이날을 아이다호 데이(IDAHO-International Day Against Homophobia & Transphobia, 국제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로 지정하여 기념하고 있다.
 7) 하지만 국제사회에서 동성애자 인권보호와 성적 지향을 존중하는 결정이 이어지고 있다. 세계인권선언의 사회권규약, 반기문 UN 사무총장의 성소수자 인권옹호 담화, WHO의 질환삭제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국제사회의 지지와 그보다 앞선 토론이 있다. 특히 올 6월 미국 장로교(PCUSA)가 미국 루터교의 뒤를 이어 목사들의 동성결혼 주례를 교단 차원에서 통과시킴으로서 기독교계의 변화를 견인하고 있다.
 8) 토리 (2012). 뛰는 혐오, 나는 인권: 성소수자 혐오, 공격 넘어서기 좌담회 자료집 중 '혐오세력 응시하기, 혐오 공격 넘어서기'
 9) 2007년부터 2013년까지 차별금지법, 학생인권조례, 동성애 처벌 규정인 균형법 제92조의 6조항에 이르기까지, 동성애자의 인권보장 내지는 침해에 관련한 최소한의 인권을 지키고자 하는 법률과 조례 제정 이슈에는 빠짐없이 등장하여 혐오담론을 생산해내고 영향력을 행사하는데 앞장서 왔다.



김하나 연구집단 카이로스 연구원(<http://cairos.tistory.com>). 대학원에서 여성학으로 석사학위를 받았다. 주요 관심은 섹슈얼리티와 종교, 교회의 가족중심성이다. 가족 혹은 남성과의 관계맺음 속에서만 여성에게 정상성과 여성됨을 허락하는 이성애 중심주의에 문제의식을 가지고 여성주의 운동과 공부를 병행하고 있다.

동성애, 너와 나를 인정하는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길원평 (바른성문화회한국민연합 실행위원장)

혹시, 이것도 알고 있나요?
 6월 12일 전국 고등학생들이 치른 전국연합학력평가에 성적소수자(동성애자)와 동성결혼에 관한 문제 세 개가 출제되었다. 그런데 세 문제 모두 학생들로 하여금 동성애자와 동성결혼을 옹호하는 인식을 갖도록 유도하였다. 즉, 성적소수자를 비도덕적이라고 보는 시각은 잘못된 것이며,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는 것이 외국의 추세이고 옳다는 인식을 갖도록 만들었다. 도덕교과서 집필기준에 동성애자 인권을 강조하는 내용이 들어가면서 동성애와 동성결혼에 대한 찬반 주장이 실리게 되었고, 동성애를 옹호하는 교사들이 편파적으로 문제를 출제한 것이다. 또한 6월 7일에는 서울 신촌에서, 6월 28일에는 대구에서 퀴어 축제(동성애자 축제)가 열렸다. 엉덩이를 드러내며 사랑이라고 주장하는 그들의 모습은 그저 음란 공연에 불과해 보인다. 이러한 집회가 가능한 것은 동성애자 집회를 차별하지 말라는 인권위의 권고와 진보 성향 국회의원의 지지가 있기 때문이다. 퀴어축회에 미국 대사관도 부스를 설치하였는데 이는 다른 나라 윤리 문제에 간섭하지 않는 외교 관례에 어긋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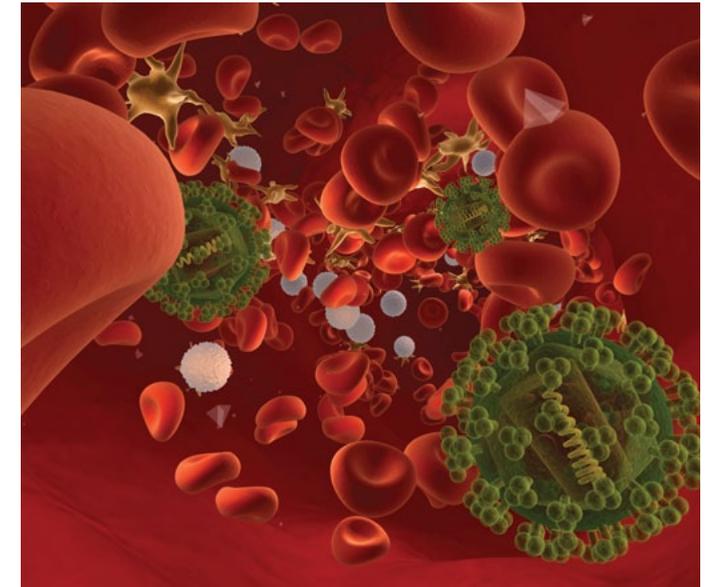
편집자주. <월드뷰>에서는 다양한 의견을 소개합니다. 이는 본지의 견해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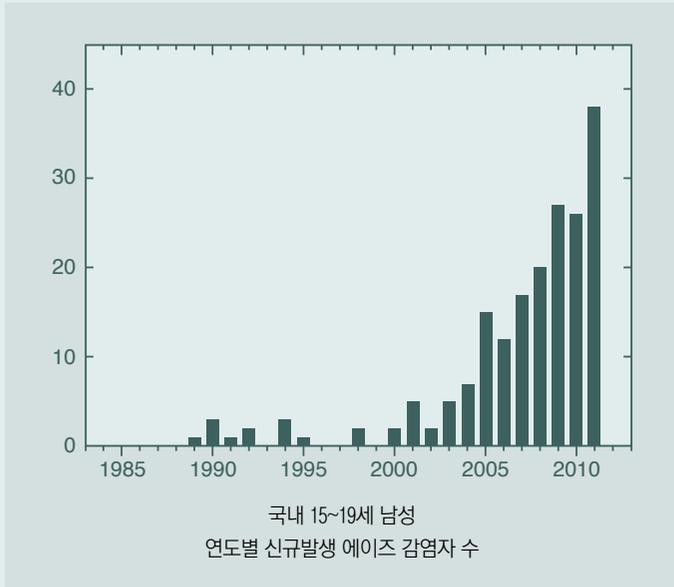
이처럼 한국 사회에 동성에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기독교인은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지 살펴보겠다.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한 남자와 한 여자로 이루어진 결혼제도 안에서의 성관계만을 허용하셨다. 성경은 구약과 신약 모두 동성애 행위를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가증한 죄악으로 명시하였다. 서구에 동성애가 확산된 것은 동성애가 선천적인 것이라고 오해했기 때문이다. 동성애가 유전이 아니라는 대표적인 근거를 들자면, 동성애자는 아이를 낳을 수 없으므로 유전자가 다음 세대로 전달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녀를 적게 낳는 (또는 낳지 못하는) 행동양식은 결코 유전적이라고 할 수 없다. 어떤 행동양식을 갖게 만드는 유전자를 가진 집단이 자녀를 적게 낳으면, 그 유전자는 다음 세대로 적게 전달된다. 결국 그 유전자를 가진 집단은 사라지게 된다. 동성에 성향이 선천적으로 결정되지 않음을 나타내는 또 다른 강력한 증거는 일란성 쌍둥이의 동성애 일치 비율이다. 동성애 성향이 유전자 또는 태아기 호르몬에 의해 결정된다면, 같은 유전자를 지니고 같은 자궁에서 영향을 받은 일란성 쌍둥이의 동성애 일치 비율이 높아야 한다. 그러나 2000년에 조사한 남성 일란성 쌍둥이의 동성애 일치 비율은 11%에 불과했다. 동일한 유전적, 선천적 영향을 받은 일란성 쌍둥이의 동성애 일치 비율이 낮다는 것은 동성애 성향이 유전도 아니고 선천적으로 결정되는 것도 아니라는 분명한 증거이다.

치유가 불가능하니 용납하고 인정하자?

동성에 옹호자들은 동성에 성향이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형성되는 것이므로, 동성애는 정상이며 도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과학적 근거가 없다. 사람의 행동양식이 형성되는 과정에 의지가 몇 % 관여하고 의지와는 상관없는 요인이 몇 % 관여하는지, 현재의 과학 수준으로는 파악할 수가 없다. 인간은 로봇이나 기계와 달리 요인에 의지적으로 선택하고 반응하므로, 모든 행동양식의 형성에 의지가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동성에 성향이 어린 나이에 형성되므로 도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주장은, 아이의 마음에 의지와 무관한 요인에 의해 동성에 성향, 즉 동성애의 씨앗이 형성될 수는 있지만 그 씨앗이 자라 성인 동성애자가 되는 과정에 자신의 선택과 의지가 관여한다는 점을 간과한 것이다. 그러므로 어릴 때의 동성애 성향을 핑계로 도덕적 책임을 피할 수는 없다. 미국 통계에 따르면, 16살에 자신을 동성애자 또는 양성애자라고 답했던 학생의 대부분이 1년 후에는 이성애자라고 답했다고 한다. 이처럼 청소년의 마음에 형성된 동성애 성향은 매우 유동적이며 의지와 절제력에 의해 충분히 교정가능하다. 따라서 동성애를 옹호하는 교육은 동성애 성향을 강화시켜 성인 동성애자를 조장하는 잘못된 결과를 초래한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의 인체, 특별히 성 기관을 다르게 창조하셨고, 그것의 결합으로 성행위를 하도록 만드셨다. 동성애 행위는 이러한 하나님의 창조섭리, 즉 인체구조에 어긋난 비정상적인 성행위이다. 남성 동성애자는 평균과 바이러스가 많은 항문에 성행위를 하여 다양한 성병, 합병증, 항문·직장의 궤양 등의 문제를 일으킨다. 또 괄약근이 약해져서 하루에도 열 번 이상 화장실을 가게 되며 기저귀를 해야 한다. 항문 바로 위의 직장은 얇은 세포막으로 이루어져 있어 작은 충격에도 상처가 생겨 쉽게 질병에 감염된다. 이처럼 남성 동성애자들은 일반인이 잘 걸리지 않는 질병에 노출된다. 참고로 한국의 남성 동성애자는 0.2% 정도인데, 국내 매독 환자의 21%가 동성애자이다. 이러한 문제들은 동성애가 하나님의 창조섭리, 즉 인체구조에 어긋난 비정상적인 성행위임을 보여준다. 에이즈 관련 논문들은 에이즈 고위험군으로 남성 동성애 집단과 윤락여성을 선택하는데, 서울대 보고서는 약 70%가 남성 동성애 집단에 의해 감염된다고 추정했다. 에이즈 감염자 수가 최근 10년 동안 4배 증가했고, 현재는 2~3만 명으로 추정된다. 1년 의료비를 이천만 원으로 가정하면, 동성애로 감염된 14,000~21,000명(2~3만 명×70%)의 의료비는 2,800~4,200억 원에 이른다. 영국의 인구는 6,400만 명으로 우리와 비슷하는데, 동성애자 수와 에이즈 환자의 수가 우리의 열 배 정도이다. 영국처럼 에이즈 환자의 수가 증가하면 수조 원의 의료비가 지급되어야 하는데 이는 결국 세금 폭증으로 이어진다. 국내 남성 동성애자가 에이즈에 걸릴 확률은 약 10%로, 일반인이 에이즈에 걸릴 확률의 약 180배이다. 즉, 남성 동성애자 열 명당 한 명은 에이즈 바이러스를 갖고 있다.



도 아니다. 실제로 동성애에 깊이 빠졌다가 치유 받은 사례들이 적지 않다. 또 치유받은 후 동성애에서 벗어나려는 자들을 돕는 전 동성애 단체들도 많다. 동성애 옹호자들은 동성애가 치유 불가능한 것처럼 홍보함으로써 거기서 벗어나고자 하는 사람들을 절망시키고 끔고자 하는 의지를 꺾어버린다.

동성애자의 삶은 영화나 드라마에 나타나는 것처럼 그렇게 행복하지 않다. 동성애자들이 동거하는 평균기간은 약 2.5년이다. 에이즈가 발견된 후 에이즈에 대한 교육을 받고 친구들이 에이즈로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모르는 사람과 성관계를 가진다. 이것은 그들의 행위가 중독임을 보여준다. 동성애자들은 나이가 들수록 외로움에 시달린다. 일반인의 2배나 알코올에 의존적이며, 남성 동성애자의 경우 일반인보다 3배나 자살 시도를 많이 한다. 남성 동성애자 수명은 일반인보다 25~30년 짧으며 알코올 중독자보다도 5~10년이 짧다. 이렇게 수명이 짧은 것은 난잡한 성관계로 인해 에이즈와 각종 질병에 감염되기 때문이다. 동성애자의 삶은 행복하지 않다. 따라서 동성애를 계속하게 내버려 두는 것은 진정한 사랑이라고 볼 수 없다. 올바른 기독교 세계관은 동성애를 끊고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또한 동성애는 에이즈를 전파하는 위험행위이므로 담배에 경고 문구를 넣듯이 그 위험성을 알려야 한다.

15~19세 남성의 에이즈 감염자 신규 발생 수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2000년을 전후하여 급격히 증가함을 볼 수 있다. 2003년에는 5명에 불과하던 청소년 에이즈 환자의 수가 2011년에는 38명으로, 8년 동안 대략 8배 증가한 것이다. 청소년 에이즈 환자 중 57%가 동성애자이다. 최근 문화·교육적으로 동성애를 옹호하는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청소년들이 이를 쉽게 받아들이고 있는 듯하다. 참고로 2011년 미국의 13~24세 남성 에이즈 감염자 중 94~95%가 동성애 행위로 감염되었다고 한다. 청소년에게 동성애 행위와 에이즈의 상관관계 등과 같은 위험성을 충분히 경고해 두지 않으면 미국과 동일한 수준으로 청소년 에이즈 감염자 수가 증가할 지도 모른다. 에이즈와 동성애가 높은 상관관계를 갖는 이유는 항문성교와 난잡한 성관계 때문이다. 1978년 조사에 따르면 백인 남성 동성애자의 32%가 100~499명의 남성과, 43%는 500명 이상의 남성과 성관계를 가졌으며, 대다수의 파트너가 그날 처음 만난 사람이었다. 동성애 옹호자들은 동성애는 치유가 불가능하므로 있는 그대로 용납하고 인정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동성애자들에게도 여러 등급이 있다. 동성애 행위를 몇 번 경험한 사람도 있고, 깊이 빠져 중독된 사람도 있다. 술을 가끔 마시는 사람도 있고, 알코올 중독자도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동성애 행위를 몇 번 경험한 사람은 쉽게 빠져 나올 수 있지만, 중독 상태가 된 사람은 끊기가 매우 어렵다. 끊기 어렵다는 것을 이유로 동성애 행위를 정상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은 옳지 않다. 이것은 알코올 중독에게 끊기 어려우니 계속 술을 먹으라고 권장하는 것과 같다. 또 끊겠다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불가능한 것

동성애 차별의 문제인가?

차별의 법적 의미는 분리, 구별, 제한, 배제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동성애 차별 금지는 동성애자들을 손가락질하고 괴롭히는 것을 금하고, 동성애를 윤리적 문제가 없는 정상 행위로 인정한다. 그러므로 동성애를 차별 금지법에 넣게 되면 다음의 문제가 발생한다. 첫째, 동성애를 비윤리적, 비정상 또는 죄라고 표현하면 처벌받는다. 동성애를 나쁘다고 말하면 직장에서 해고되고 벌금을 내야 한다. 캐나다에서는 설교 중 동성애를 죄라고 해도 처벌받는다. 둘째, 학교에서 동성애를 정상이라고 가르치니 동성애로 물의를 일으켜도 징계할 수 없고, 동성애 단체를 결성하여 공개 모집해도 어쩔 수 없다. 동성애자인 학생을 불러 동성애를 끊도록 상담할 수도 없다. 동성애를 정상으로 공인하는 외국은 성교육 시간에 동성애 방법까지 가르친다. 동성애와 동성결혼이 정상이라고 가르치므로, 한 세대가 지나면 모두 동성애를 인정하게 된다. 셋째, 건전한 성윤리를 가진 국민의 권리가 제한 또는 금지된다. 동성애 커플의 웨딩 촬영을 거부하거나 방을 주지 않으면 벌금형에 처해지고, 동성애 차별금지법은 결국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언론이 과연 심판자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

한국 사회에 동성애가 확산되고 있는 것은 동성애를 인정하는 외국과 동성애를 미화·옹호하는 매스컴의 영향 그리고 동성애자들의 집요한 노력 등의 산물이다. 특히 국가인권위원회의 영향이 큰데, 2005년 인권위 보고서를 살펴보면 동성애자를 위한 법령 개정, 교과서 개편, 동성결혼 등에 대한 정책을 제안하였고, 이성애 중심의 교육과 미션스쿨의 호모포비아 등을 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보고서를 토대로 2012년에 동성애를 정상이라고 가르치는 도덕교과서가 만들어졌지만, 국민의 항의로 2013년에 시정되었다. 이외에도 인권위는

2003년에 동성애 매체물을 청소년 유해물 지정에서 삭제할 것을, 2006년에는 동성애 차별금지법을 제정할 것을 권고했고, 2010년에는 동성애를 금지하는 군 형법을 폐지하라는 의견서를 냈다. 또, 2011년에는 보도준칙을 만들어 동성애가 에이즈 등의 질병과 관련이 있다는 기사를 쓰지 못하게 했다. 인권위법에 성적지향(동성애)이 차별금지사유로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속히 인권위법을 개정하여, 인권위가 동성애 옹호활동을 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 하루라도 빨리 동성애에 대한 바른 기사를 쓰지 못하게 하는 보도준칙을 수정하여 동성애를 옹호하는 언론의 영향을 차단해야 한다. 특히 언론은 국민들에게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시급하다. 또한 도덕교과서 집필기준을 공정하게 개정하도록 교육부에 압력을 넣고, 교사들이 동성애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갖도록 홍보해야 한다. 또 언론, 교육, 정부 각 영역에 형성되고 있는 동성애 옹호 분위기를 막기 위해 각계 기독교인들이 힘을 합쳐야 한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다면 적극 후원하고, 전문가들은 논문과 책자를 발간하여 동성애에 대한 바른 지식을 알려야 한다. 온 땅을 다스리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시니, 최선을 다한다면 동성애 확산을 충분히 막을 수 있다. 동성애를 인정하는 국가 대부분은 포르노를 합법화하여 성적 타락을 법적으로 허용한 나라들이다. 경제적으로 부유해진 선진국들이 성적으로 타락하면서 두드러진 현상 중 하나가 동성애이다. 네덜란드와 미국 몇 개 주는 마약을 합법화하였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국이 건전한 성윤리를 유지하는 본보기가 되는 국가로 우뚝 서서 서구의 무너진 성윤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기를 기대하신다. 이 시대의 기독교인들은 이러한 막중한 사명감을 갖고 있음을 기억하고 최선을 다해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

더 알기 원하신다면,
 <네이버 웹툰> 동성애자의 양심고백
<http://comic.naver.com/challenge/detail.nhn?titleId=628882&no=1>



길원평 서울대를 졸업하고 미국 캘리포니아주립대(UCSB)에서 박사로 수학하였다. 현재 부산대 교수이며, 초량교회 장로이다. 바른 성문화를위한국민연합 실행위원장, 동성애문제대책위 운영위원장으로 섬기고 있다.

동성애에 대한 기독교적 관점

이상원 (충신대학교 신학대학원 교수)

편집자주. <월드뷰>에서는 다양한 의견을 소개합니다.
이는 본지의 견해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

1.

최근 한국을 포함한 세계 곳곳의 동성애자들이 시민, 교회회원으로 이성애자들과 동등한 권리를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는 동성애를 인정하는 성경의 새로운 해석과 과학적 연구가 자리잡고 있다. 동성애를 부정하는 근거로 사용되어 온 성경 본문들을 거꾸로 동성애를 권장하는 내용으로 해석함으로써 성경이 동성애를 용인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또 표본조사와 설문조사 특히 유전학적 연구를 중심으로 한 과학적 연구결과들은 동성애가 선천적인 성적 지향임을 보여준다는 것이다.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면 동성애자에 대한 어떤 도덕적, 법적 제약도 가해서는 안 되며, 시민으로서의 권리도 적극 보장해 주어야 할 것이다.

동성애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다음의 내용들을 확실히 이해해야 한다. 첫째 동성애를 비판하는 성경 본문들이 동성애를 침묵 또는 용인하고 있다는 새로운 해석은 심각한 편견에 의한 왜곡된 해석이다. 둘째, 동성애가 선천적인 성적 지향임을 입증하는 근거로 인용되고 있는 조사와 실험들이 의도적인 표본선정의 편향성, 결과의 조작 등으로 얼룩진 것들이다. 즉, 동성애가 선천적인 성적 지향이라는 주장은 입증된 적이 없다. 따라서 동성애가 왜곡된 성 습관이라는 전통적인 관점은 여전히 유효하며, 이 관점에서 동성애자들의 법적 권리 주장도 이해되어야 한다.

2.

동성애에 관련된 성경 본문들이 동성애에 관하여 침묵하거나 용인한다는 주장은 본문을 심각하게 왜곡한 결과이다. 여기서는 특별히 소돔과 고모라,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 로마서 1장 26절과 고린도전서 6장 9절의 해석 문제 등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a. 소돔과 고모라. 동성애 찬성론자들은 창세기 19:5의 ‘상관하다’와 8절에 ‘남자를 가까이하다’에 사용된 히브리

어 ‘야다’가 ‘성교’를 뜻하는 용법으로 사용된 경우가 구약 전체 948회 중 12회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면서, 이런 소수용법이 여기서 사용되었을 리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단어의 용법은 문맥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지 그것이 소수용법인가 다수용법인가는 큰 의미가 없다. 사실 그 점을 고려하더라도 창세기에서 사용된 12회 중 10회가 성교의 뜻으로 사용되었기에 여기서도 ‘성교’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동성애 찬성론자들은 에스겔이 소돔과 고모라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않은 한 가지 죄악 때문에 멸망했다(겔 16:49-50).”고 선포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본문의 구조를 살펴보면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않은 죄” 다음에 접속사 “그리고”에 이어 “거만하여 가증한 일”을 행했다고 하면서, 소돔과 고모라의 죄를 추가한다. “가증한”이라는 형용사는 레위기 18:22에서 동성 간의 성교를 뜻하는 말로 사용되었다. 그러므로 에스겔 본문은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원인으로 동성애를 지적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또한 유다서 7절도 소돔과 고모라가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멸망했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다.

b.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 동성애 찬성론자들은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다(삼상 18:3).”는 표현을 동성애를 가리키는 것으로 본다. 또 “겉옷을 벗었다(삼상 18:4).”는 성행위를 위하여 옷을 벗은 것으로, “서로 입 맞추고 같이 울되(삼상 20:41)”는 성에 시 입맞춤과 오르가즘을 경험한 것으로 기상천외하게 해석하고 있다. 그러나 다윗과 요나단이 생명같이 사랑했다는 말은 아가페 사랑에 근거한 친밀한 우정을 나누었다는 의미이며, 겉옷을 벗어 준 것은 우정의 징표, 입맞춤은 당시 관례적인 친밀한 인사방법이었다. 또 다윗과 요나단의 울음을 오르가즘으로 해석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c. 로마서 1:26. 동성애 찬성론자들은 로마서 1:26-27의 “순리”와 “역리”를 사회학적 개념으로 해석한다. 사회학적 개념은 사회학적 성찰에 따라 정하는 것이므로, 본문은 동성애를 이성애와 더불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대안적 가능성들의 하나로 인정해 주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는 사회학적 개념이 아니라 생물학적 성질서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는 것이 문맥에 맞고 자연스럽다. 남자와 여자가 성교하는 것은 순리이고 동성끼리 성교하는 것은 역리라는 것이다.

d. 고린도전서 6:9. 존 보스웰은 본문에서 “탐색하는 자”(헬, 말라코이)는 일반적인 도덕적 연약성을, “남색하는 자”(헬, 아르젠코이타이)는 남성 창부를 가리키는 것이 동성애자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탐색하는 자”는 “부드러운 옷을 입은 자”와 “남성 동성애에서 수동적인 역할을 하는 자”라는 두 가지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간음하는 자, 탐색하는 자, 남색하는 자”라는 강렬한 용어들이 병렬되어 있는 구조에서 “부드러운 옷을 입은 자”라는 의미가 자리잡을 여지는 없어 보인다. “남색하는 자”에 해당하는 헬리어는 70인역(구약의 헬리어 역본)에서 레위기 18:22과 20:13의 동성애자를 표현하기 위해 고안된 신조어로, 남성 동성애에서 능동적인 역할을 하는 자를 뜻한다. 따라서 본문은 간음하는 자나 동성애를 행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의 축복에 참여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



3.

동성애가 선천적인 성적 지향임을 증명해 준다는 과학 조사 또는 연구결과들은 대부분 표본조사의 편향성과 실험과정 및 연구결과의 조작으로 얼룩져 있다.

a. 킨제이연구보고서.

1940-1950년대에 킨제이가 실시한 연구보고서를 근거로 전 세계 인구 중 10%가 동성애자라는 수치가 회자되기 시작하더니 교단의 공식문서에까지 등장했다. 그러나 이 수치는 백인 남성의 10%가 16-55세 사이에 최소 3년간 동성애자라는 조사결과가 와전된 것이며, 표본으로 선정된 백인 남성들은 대도시에 사는 동성애 연맹과 동성애 네트워크에서만 선택된 자들이다. 1990년대에 미국 전역에서 무작위로 선정한 남성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동성애자들이 1% 미만으로 집계되었다.

b. 호르몬, 뇌 구조, 유전자 연구결과.

남성 동성애자들은 남성 호르몬 수치가 낮은 반면 여성 호르몬 수치가 높고 여성 동성애자들은 그 반대라는 사실이 19세기에 등장했으나, 연구결과 동성애자와 이성애자의 호르몬 수치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성인 호르몬 가설).

쥐를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 비정상적으로 높은 성 호르몬을 투여했을 때 전도된 성 행동이 나타났다는 보고가 있으나, 실험에 사용된 정도의 성 호르몬 증가는 통상적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동물 성 호르몬 투여실험).

또 암컷 쥐에게 에스트로젠을 주입했을 때는 황체형성 호르몬 반응이 나타났으나 수컷 쥐에게서는 나타나지 않은 것을 근거로 남성 동성애자에게 황체호르몬 반응이 나타났다는 보고가 있었다. 그러나 이 실험은 재현에 실패했고, 최근에는 여성에게서 황체 호르몬 반응이 나타난다는 사실 자체가 의문시되고 있다(동물 황체호르몬 반응).

4.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성정이 동성애를 침묵 또는 용인한다거나, 동성애가 선천적인 성적 지향이라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동성애는 후천적으로 형성된 왜곡되고 병든 성적 습관으로, 성정은 이를 왜곡된 비윤리적 성적 성향이자 성 행위임을 일관성 있게 지적하고 있다. 그러면 이런 전제 하에서 동성애자들의 시민권과 성도로서의 권리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동성애자는 가난한 자, 사회적 신분이 열악한 자, 인종상 차별받는 자, 장애인, 고아, 과부 등과 같은 사회적 소수자와는 구별되어야 한다. 사회적 소수자는 본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사회구조나 자연재해 등에 의해 열악한 상태에 떨어지게 된 자들로 도덕적 책임을 질 필요가 없는 자들이다. 그러나 동성애는 비록 소수라도 사회전 계층에 분포되어 있으며, 의지적 결단에 의하여 얼마든지 교정이 가능하다. 물론 사회가 동성애자들의 시민권을 법적으로 적극 제한해서도 안 되지만, 소수자 보호라는 미명 하에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윤리적으로 건전한 행위를 장려하고 비윤리적인 행위를 통제하는 것이 법의 본무이기 때문이다. 사회는 왜곡된 동성애에서 이성애로 돌아오는 것을 장려하고 격려하는 방향으로 법과 정책을 수립해 나가야 한다.

교회는 동성애를 교정한다는 명분으로 동성애자들을 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충분한 교정기간을 두고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교정을 거부한다면, 교회의 순결 유지를 위해 교회에서 내보내야 하며, 더욱이 동성애를 교정하지 않는 자들에게 교회 직분을 맡겨서도 안 될 것이다.

유사 실험에 의해 산전에 비정상적인 호르몬 환경이 조성될 수 있고 이로 인해 성적 지향이 바뀔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으나, 실험에서 조성한 정도의 비정상적 호르몬 환경은 자연 상태에서는 일어날 수 없으며, 실험 대상이 되었던 아이들 중 성 정체성으로 문제를 보인 아이들은 없었다(약물에 의한 호르몬 환경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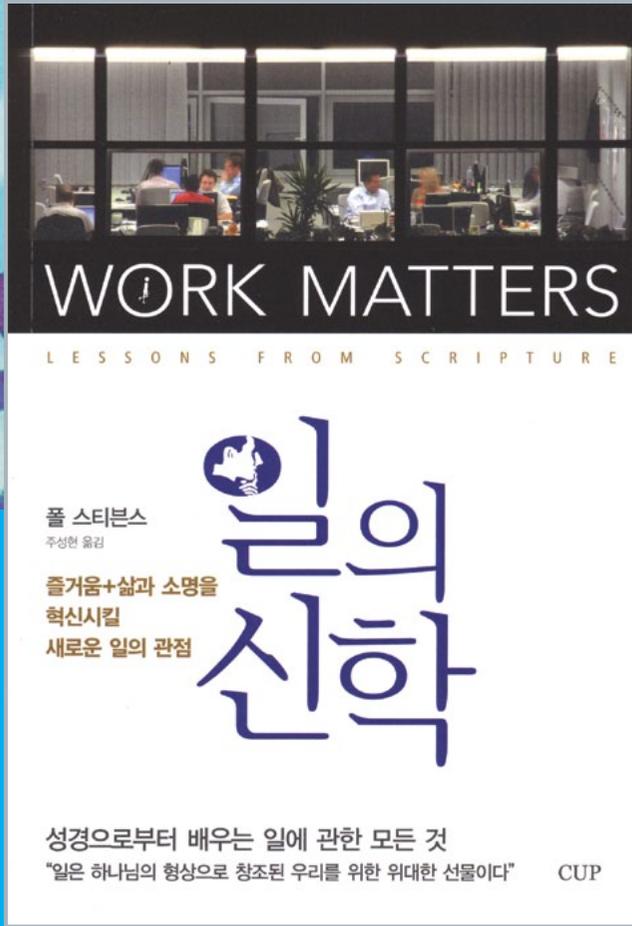
뇌 연구를 통해 동성애자의 뇌 구조(SCN, INAH3 등) 일부가 이성애자들과 다르다는 사실을 밝혀냈다고 주장했지만, 문제가 된 부위의 크기가 성적 지향과는 무관하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또한 표본으로 선정된 자들의 숫자가 너무 적고, 이성애자인지 동성애자인지 불분명하며, 다수가 AIDS를 앓다가 죽은 사람들이어서 문제가 된 현상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도 불분명함이 확인되었다.

1952년에 행해진 연구는 일란성 쌍둥이의 동성애 일치 비율을 100%로 보고하였으나 표본이 동성애자인 쌍둥이들 중에서 선정되었고 수치 상 치명적인 조작이 있었음이 확인되면서 재조사를 실시한 결과, 실제적인 일치율은 11% 내외임이 밝혀졌고 오히려 이란성 쌍둥이와 입양된 형제들 사이의 일치율이 훨씬 높게 나타났다. 이 사실은 동성애가 유전적 소인이 있다는 주장을 뒤집는 것이었다(간접적 유전자결정 가설).

1993년에 40쌍의 동성애 형제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는 33쌍이 Xq28이라는 성염색체의 어떤 부분을 공유한다는 결과를 발표했다. 그러나 이 실험은 재현에 실패했으며, Xq28은 동성애와 무관한 것임이 확인되었다(직접적 유전자결정 가설).



이상원 총신대학교 신학과(문학사),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목회학 석사)을 거쳐 미국 웨스트민스터신학교에서 신학석사, 네덜란드 캄펜 신학대학교에서 신학박사를 수료하였다. 현재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기독교윤리학 교수이며, 기윤실 신학위원장, 기윤실 기독교윤리연구소장, 한국복음주의윤리학회 회장, 성산생명윤리연구소장, 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 상임위원장을 역임하고 있다.



**직장에서 분투하는
일터 사역자들에게!**

폴 스티븐스,
70평생의 연구 결과가 집대성된
필생의 역작!

**성경 속에 담겨 있는
일터 사역자들을 소개한 책**

**일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위대한 선물이다!**

폴 스티븐스 지음 | 주성현 옮김 | 288면 | 12,000원

WORLDVIEW COLUMN

연재칼럼

나의 믿음, 나의 작품
Cantata “강하고 담대하라”



Cantata “강하고 담대하라”

◎ 김광순 (작곡가)

지난해 10월에 여러 가지 속뜻을 담은 공연을 기획하여 펼쳤는데, 내가 작곡한 칸타타 “강하고 담대하라” 이다. 부제를 ‘호남선교 120주년 기념 음악회’라 하였는데, 2013년은 호남지방에 복음이 전파된 지 두 갑자가 되는 해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개신교회의 역사 기원은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두 사람의 장로교와 감리교 목사가 제물포(인천)항을 통해 입국한 때로부터 셈한다. 두 선교사가 배에서 내린 1885년 4월 5일은 마침 그해 부활주일이었다. 부활의 아침, 사망의 어둠이 깃든 땅에 생명의 빛이 비추이기 시작한 날로 기억할 만하다.

제물포항에 내려 서울에 들어온 개신교회 선교사들이 남쪽 충청 이남으로 내려오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렸다. 1893년 1월 미선공의회가 조직되고 각국 선교부들에 의해 선교지역이 할당되었는데, 그 결과 호남은 미국 남장로교회 선교부 몫이 되었고 그해 가을에 비로소 선교사의 발이 금강의 경계를 넘어섰다.

그때는 1893년 9월 어느 날로 기억된다. 전주서문교회 100년사에 의하면 미국 남장로회에 속한 선교사 두 사람, 테이트(최익덕)와 전킨(전위렴)이 서울로부터 전라 감영이 있는 전주부에 내려온 때를 개신교 호남 선교의 기원으로 삼고 있다. 지난 2013년은 그때로부터 선교 개시 120년이 되는 해였다. 이때에 그들이 세운 전주서문교회에서 나의 아버지

와 내가 태어나고 성장하였다. 조부로부터 섬겨온 이 교회는 나의 뿌리이고, 근원이었다. 대학을 마치고 결혼하여 고향에 내려오면서부터 시작한 성가대 지휘를 20년 동안 계속하였으며 그 사이 두 자녀도 낳았고, 지금 근무하는 전주대학교의 교수가 되어 활발한 활동도 펼쳤다. 전주서문교회의 창립 100주년을 맞아 기념음악회도 지휘하였으며, 여러 가지 교회음악을 작곡하고, 연주하였다. 그러나 내가 굳게 믿고 의지하던, 나의 모든 것이라 생각했던 이 교회에 분쟁이 시작되었고, 악랄하고 끝없는 이 처절한 싸움은 그칠 줄을 몰랐다. 곧 평안을 되찾을 것이라는 기대는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결국 이 사건은 그동안 내 마음 속에 품고 있던, 교만하고 헛된 믿음과 신앙을 진정으로 깨닫게 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나의 기억 이전부터 이어 지던 내가 그렸던 교회는 허상이고 우상이었음을 뒤늦게 알게 된 것이다. 기나긴 방황을 마치고 작고 평화로운 새로운 교회에 안착하여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던 중, 지난해 2013년을 맞으며 참으로 착잡한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전주서문교회를 평생을 사모하며 섬기던 부친(김대전 장로 1922~2012)께서 지난해 모 교회의 회복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떠나셨기에, 더더욱 아무 짓도 않고 모른 체 지나칠 수 없었다. 그래서 선친께서 흠모하고 평생을 그리워하시던 석운 김가전(1892~1951) 목사의 생애를 조명하는 칸타타를 작곡하여 연주함으로써 하늘나라에서나마 위





로를 받으며, 듣는 이들에게도 선각자의 믿음을 감동의 울림으로 받아들이는 기회가 되기를 원하였다. 교회의 보여지는 성과를 내세우며 자랑스럽게 뽐내려는 역사보다는, 믿음을 쌓아가는 구원의 발자취를 회고하며 교훈과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공연을 기획해야겠다고 생각하였다.

석운 김기전 목사의 생애는 위당 김규배선생의 2남으로 충남 한산에서 출생하였고, 온 집안이 기독교로 개종한 1900년에 신앙을 받아 들었다. 1906년 충남 한산에 신학문을 교육하는 한영학교에서 초등 및 초등중학교 과정을 학습하고, 군산 영명학교를 졸업한 후 한영학교에서 교편을 잡았다. 1916년 서문교회에 시무하게 된 가형(家兄) 경재 김인전(經齋 金仁全, 1876~1923, 상해 대한민국 임시정부 의정원 제 4대 원장) 목사를 따라 전주로 이거하여 1919년 경재 목사와 함께 전주의 독립만세운동을 주도하였고, 일본경찰에 붙잡혀 징역 옥고를 치르셨다. 1921년 평양신학교에 입학하였고, 졸업 후 1925년 전주신학교 교목으로 발령받았다. 1926년 전북노회 노회장으로 선출된 후, 1930년 목사로 장립되었다. 해방 직후 1946년 전주북중학교 2대 교장에 취임하여 교육에 대한 파격적인 의지를 보였으며, 1949년 나라의 부름을 받고 전라북도 도지사에 취임하였다. 그 후 1950년 6.25동란이 발발하고, 피난민 구호에 동분서주하던 군산 출장 중 1951년 10월 5일 쓰러져 유명을 달리하였다. '강하고 담대하라'는 석운 목사가 평소 신념을 세우고, 마음

에 품어 몸소 실천하던 말씀으로 이 칸타타의 이름으로 명명하였다. 두 명의 독창자와 합창단 그리고 2관편성의 관현악단이 연주하는 이곡은 13곡으로 구성하였다. 테너 독창자는 석운 목사역이며, 소프라노 독창자는 그를 따르는 제자 혹은 성도들의 노래로 설정하였다.

제 1곡 서곡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하느니라'(여호수아 1:9)에 의한 Orchestra Overture 이다. 여호와께서 모세가 죽은 후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명하시는 이 말씀이 아무런 대책이 없던 일제 강점기를 맨몸으로 건너던 석운 목사에게도 얼마나 큰 위로와 소망이 되었을까를 생각하면 가슴이 먹먹해 진다.

제 2곡 합창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 하라>

한 치의 앞도 보이지 않는 암울한 상황에서도 이 말씀만을 의지하여 오직 믿음과 소망으로 제자와 성도들을 인도하여 이끌었다는 합창곡이다.

제 3곡 테너 서창과 아리아 <모진 비바람 어찌 견디리>

어린 시절 한일 병합을 당하여 참담한 처지의 민족의 모습을 걱정하며, 기필코 독립을 쟁취 하겠다는 자신의 의지를 노래한다.

제 4곡 합창 <인애하신 구세주여>

이 찬송은 석운 목사가 항상 부르며 의지하였으며, 이 찬송으로 막막한 현실을 이겨내는 도구와 간절한 기도로 사용했다고 한다. 이 곡은 4개의 변주로 구성하였으며 민족 해방의 절박한 심경을 표현하고 있다.

제 5곡 테너 서창과 아리아 <겨려여 깨어라>

석운 목사가 제자와 성도들에게 굳은 믿음과 민족정신을 독려하고 추종하는 동지들에게 자신의 각오와 의지를 밝히고 있다. 창씨개명과 신사 참배를 결연히 거부하고 갖은 고초를 이겨내어 마침내 자주독립과 바른 신앙을 지키셨다.

제 6곡 합창 <외쳐라 온 고을 백성아>

기미년 삼일만세운동 당시 온 백성이 꺾기하는 모습을 그린 곡이다.

제 7곡 소프라노 서창과 아리아 <총칼이 못 막네>

1919년 삼일만세운동에 임하는 백성들과 제자의 모습이며, 인용한 애국가 는 당시에 부르던 곡이다.

제 8곡 합창 <민족 해방의 그날>

1945년 8월 15일 일본 제국의 패망으로, 영원하던 민족 해방을 맞아 온 백성이 다함께 큰 기쁨을 노래하는 곡이다. 석운 목사가 53세 때이다.

제 9곡 테너 서창과 아리아 <박애, 자유, 지성, 노력>

아무런 준비도 없이 갑자기 맞이한 해방 공간에서 조국과 고향을 바라보는 석운 목사의 의지와 신념을 나타내는 곡이며, 본제는 당시 교장으로 추대된 5년제 전주북중학교의 교훈이기도 하다.



김광순 작곡가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작곡과 졸업, 세종대 대학원(석사)을 졸업하였으며 Bulgaria 국립 소피아 음악 아카데미(박사)를 수료하였다. 주요 작품으로는 교향곡 '아리울', 오페라 '정곡인', '건훤 대왕', 뮤지컬 '상춘곡', 'Love & Gate', 칸타타 '구시포 노랑모시조개', '구원의 주님', '강하고 담대하라', '대 바람소리', '강', 무용곡 '바다에서 온 여인', 'K에게' 등이 있다. '바람소리'와 "온 고을 소곡"을 통하여 우리말의 정확한 표현을 꾀하는 발표회를 이어가고 있다. 현재 전주대학교 교수, 사예술키획 예루의 대표, 전주 갈릴리교회 지휘자이다.

제 10곡 합창 <내 나라 내 고장>

이 곡에 인용된 북중학교의 교가는 석운 교장 시절에 제정되어 불리었다. 또한 인용된 6.25 노래는 김동진 작곡이며 개사하여 사용하였다.

제 11곡 테너 서창과 아리아 <이 몸 바쳐 사랑 하리>

석운 목사가 해방 후 여러 가지 활동에서 실천한 본인의 마음과 각오를 그리는 곡이다. 석운 선생은 1946년 북중학교의 교장, 1949년 전라북도 도지사로 일하며, 전북대학교를 설립 했고, 전쟁 중에는 전신연립대학도 만들었다.

제 12곡 소프라노 서창과 아리아 <애 님은 가고>

6.25 동란 중에 도지사의 업무를 막중히 여겨 몸을 돌보지 않고 시무하시던 출장 중 쓰러져 유명을 달리한 석운 선생을 떠나보내는 안타까운 조가이다.

제 13곡 합창 <기도 합니다>

주님 나의 하나님 내게 주신 모든 것 주님 앞에 바치오니 주여 받아 주소서.

저는 죄로 불결하여 거두실 것 못 되오나 보혈로 씻어 주사 정결하게 하여 주소서.

주님 나의 하나님 내게 주신 모든 것 주님 앞에 바치오니 주여 받아 주소서. 아멘.

사)예술기획 예루가 기획하고 주최한 이 연주회는 2013년 10월 17일 19시30분, 한국 소리문화의 전당 연지홀에서 열렸다. 지휘에 윤의중, 소프라노 독창 서보란, 테너 독창은 김재명, 첼발로는 이명이었다. 합창은 서울마스터코랄 Orchestra에는 클나무오케스트라가 연주하였다.

삶을 위한 신학

: 모든 이를 위한 기독교 신학 입문

📖 박중진 (고려대 교수)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당대의 사상과 전통, 문화의 지배를 받으면서 산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계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기 위해 투쟁한다. 그리스도의 교회에 속한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실천하여 그리스도의 통치가 이 땅에서 실현되기를 열망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일은 모든 교회와 신자들에게 주어진 평생의 과업이다.

많은 신자들에게 알려진 하나님의 뜻이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학문이 되었는데, 이것이 바로 신학이다. 체계화된 방식이나 내용에 따라 이견도 많지만, 신학은 믿음의 내용에 대한 세계관과 같다. 즉, 신자들은 누구나 어떤 신학적 토대 위에서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신학이 필요 없다고, 심지어 논쟁을 일으켜 교회의 분열을 조장하는 필요악이라고도 한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에게 신학은 무엇일까? 목사가 되기 위해 신학교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또 그들을 가르치는 교수들에게는 신학은 어떤 의미일까? 이 책은 이러한 질문에 솔직하고 현실적인 답을 제안한다.

이 책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 있다. 1부는 기독교 신학에 대한 내용이고, 2부는 현대 자연과학에 대한 신학자의 비판이다. 저자는 신학자가 기독교 전통

을 세상에 설명하는 역할과 소명을 감당해야 한다고 제안하는데, 이 책 2부에서 직접 모범을 보인다. 책의 제목과 관련된 내용 대부분은 1부에서 진행된다. 각각은 서로 상호보완적이므로 어떤 부분을 먼저 읽어도 유익하다.

1부에서 저자는 신학이 무엇인지를 여러 방식으로 설명한다. 신앙을 통해 이해하려는 것을 말로 설명하려는 시도가 신학이다. 또한 기독교 신앙이라는 광활한 지평을 조망하며, 복음을 '경관'에, 신학을 '지도'에 비유한다. 지도는 경관에 종속되는 자료지만 우리가 경관을 즐기는 데 도움을 준다. 이 비유가 적절한 것은, 지도는 개정될 수 있고, 옛 지도는 그 당시 경관이 어땠는지, 경관을 어떻게 그렸는지에 대한 역사적 교훈을 줄 수도 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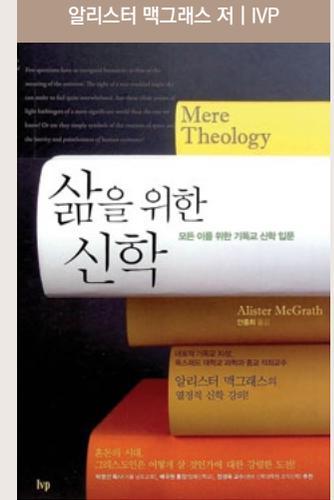
신학을 가능하게 하는 세 가지 요소에는 성경, 이성, 그리고 전통이 있다. 성경은 '성령으로 영감 되었다.'는 점에서 권위가 있다. 이성에는 한계가 있지만 계시된 하나님의 신비를 숙고할 수 있게 한다. 전통은 성경해석 방식에서 사도적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다. 이런 토대 위의 신학이 신자들에게 유익을 주는데, 그 좋은 예가 성만찬에 대한 신학적 이해이다.

저자는 자신의 경험을 소개하면서 신학의 필요성과

한계, 그리고 지향점을 지적한다. 그는 옥스퍼드대학에서 화학을 공부하던 18세에 신자가 되었다. 기독교가 무신론보다 현실을 더 포괄적이고 일관성 있게, 설득력 있게 설명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그 후 저자는 신학을 공부하기 시작했고, 지성적, 합리적 신학이 삶의 다양한 측면에 모든 해답을 줄 수 있다고 믿었다. 그러나 마르틴 루터(Martin Luther)의 저서에서 "신학자는 이해와 독서와 사색을 통해서가 아니라 삶과 죽음과 저주를 통해서 만들어진다."는 진술을 접하고 혼란에 빠진다. 또 "오직 십자가만이 우리의 신학이다.", "십자가는 모든 것을 시험한다."는 말에도 걸렸다. 그는 루터의 사상을 받아들일 수 없었는데, 당시에는 그의 신앙이 지적이고 학문적이었을 뿐 아니라, 현실 경험은 '명확하고 뚜렷한' 언어로 표현될 수 있다는 계몽주의 사상의 영향 때문이기도 했다. 초년생 신학자로서 그의 목표는 개념적 정확성이었다.

저자는 3년간 교회에서 부목사로 시무하면서 학문적 신학의 한계를 인식하게 된다. 특히, 장례식장을 오가며 논리적인 신학 개념들이 감정과 관계 면에서 피상적인 것임을 깨닫는다. 저자가 존경하는 C. S. 루이스도 아내의 죽음을 경험하면서 지성에 근거한 이성적 신앙의 취약성을 깨달았다고 한다. 저자는 비로소 루터의 '십자가 신학'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고, 세상의 험한 경험을 통과하지 않은 신학은 의구심과 절망에 빠지기 쉽다고 고백한다.

또 신학자로 부름 받은 사람들은 신앙 공동체, 곧 교회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고 간증한다. 신학은 예배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이 예배 공동체에서 최고의 신학이 만들어진다는 것이다. 신학자, 곧 목사는 신학적 유산을 다양한 각도에서 바라보면서 공동체를 위해 이 위대



한 전통을 해석·적용하는 한편, 공동체가 생각하고 말하는 방식, 공동체의 문제와 열망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투명한 언어와 이미지로 공동체와 기독교 복음을 연결해야 한다. 그러므로 참된 신학은 목회, 선교, 예배를 통해 말씀을 실천할 때 이루어지게 된다. 저자는 신앙 공동체인 교회를 떠나서는 신학이 존재할 수 없음을 강조한다.

서구 교회는 변증과 복음 전도로 확장되었다고 한다. 변증은 궁극적인 질문에 의미 있는 답을 제공할 수 있음을 입증하려는 것이고, 복음 전도는 사람들이 복음에 응답하도록 요청하는 것이다. 변증은 사람들의 동의를 얻는 것을, 복음 전도는 사람들의 헌신을 이끌어 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변증은 회심의 장애물을 제거하고 신자들이 신앙을 지키도록 도울 수 있지만 그 자체로는 사람을 개종

시킬 수 없다. 진정한 회심은 은혜의 하나님을 깨달을 때 가능하기 때문이다.

오늘날의 교회는 이 둘을 명확하게 구별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다. 변증은 신앙을 세우는데 도움을 주지만 현신을 이끌어내는 데에는 한계가 있고, 반대로 복음 전도에만 치우치면 자칫 내용이 없는 현신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저자도 하나님이 신학적 숙고, 변증 활동에 참여하신다고 하면서, 진정한 변증론은 복음의 풍성함과 기쁨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하였다.

2부에서 저자는 자연신학자로서 문화에 대한, 특히 자연과학에 대한 비판을 시도한다. 저자는 자연과학이 무신론보다 기독교 신앙 체계와 훨씬 더 잘 조화됨을 깨닫게 된 경험을 이야기해준다.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인간이 지성을 소유하고 있고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는 질서가 있다고 가르치면서, 과학 활동의 근거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자연의 다양성을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해준다.

저자는 '과학과 종교'의 대립 구도는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한다. 리처드 도킨스(Richard Dawkins)를 필두로 한 새로운 무신론자들이 기독교의 하나님에 대해 무지해서 빚어진 구도라는 것이다. 도킨스는 과학으로 증명이 가능한 하나님을 상상하고 있다. 그러나 신자들이 믿는 하나님은 과학으로 존재가 증명되는 그런 분이 아니다. 또 새로운 무신론자들이 기독교를 공격하는 내용을 살펴보면, 과학적 사실은 일부이고, 형이상학적, 비과학적 신념들로 가득 채워져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들은 과학으로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과학은 특정 영역을 다루는 학문일 뿐이다.

<종의 기원>은 다윈이 관찰을 통해 발견한 사실들을 최선의 설명으로 정리한 책에 불과하다. 사실 다윈의 이론은 작업가설 수준으로 예측을 제공할 수도 없어 비과학적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또한 자연선택으로 나타난 종의 변화가 다음 세대로 전달되는 방법을 설득력 있게 설명하지도 못했다. 그러나 다윈은 자연 세

계가 자연선택론을 가장 잘 설명해 준다고 믿었다. 이런 신념은 종교적인 것이다.

저자는 창조와 진화에 대하여 히포의 아우구스티누스(Augustinus of Hippo)의 견해를 소개한다. 다윈 훨씬 이전에 살았던 아우구스티누스의 창세기 해석을 통해 보다 객관적으로 창조와 진화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전한다. 저자는 그가 『창세기의 문자적 의미』라는 저서에서 창세기 저자와 동일한 의도로 해석을 시도했다고 말한다. 아우구스티누스에 따르면 하나님은 잠자는 씨앗의 형태로 만물을 창조하셨고, 존재의 종류와 특성을 드러내는 과정을 지배하는 고정된 법칙도 세워 놓으셨다.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그것을 형성·발전시키고 계시는데, 이러한 주장은 다윈의 돌연변이 개념과 상충된다. 저자는 이러한 아우구스티누스의 주장이 진보적이지도 타협적이지도 않은 성경적 해석이라고 주장한다.

마지막 두 장에서는 종교는 백해무익하다고 주장하는 도킨스의 새로운 무신론을 통쾌하게 비판한다. 또한 새로운 무신론이 사실 새로운 것이 아니라 옛 계몽주의의 또 다른 형태에 불과함을 날카롭게 지적한다.

이제 이 책의 내용을 비평해보자. 먼저 이 책을 관통하는 단어는 '지성'이다. 저자는 신학을 '지성의 제자도'라고도 부르는데, 여기서 '지성'은 학문적 깊이를 뜻하는 것이 아니다. '지성'이란 다양하고 복잡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실천하는 힘이다.

신앙공동체 곧 교회에서 신학자는 목사이다. 목사는 저자가 주장한 대로 복음을 충분히 깨닫고, 교회의 상황, 교인의 상황을 고려하여 최대한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소통해야 한다. 루이스는 "만일 자신의 생각을 학식이 없는 사람들의 언어로 바뀌어서 제시할 수 없다면 그것은 아직 명료하지 않은 생각일 뿐"이라고 하였다. 하나님인신 그리스도도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눈높이에 맞게 산상보훈 같은 말씀을 주셨다.

그런데 이것이 전부는 아닌 것 같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지만 자신은 말이 어눌하다며 거절했다. 이 일로 하나님께서는 노하기까지 하셨고, 결국 말을 잘 하는 아론과 함께 가라고 하셨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자를 소통의 통로로 세우셨을까? 소통은 대화이고, 말을 잘 한다는 것은 상대적인 것이다. 그러므로 언변에 능하지 않더라도 듣는 이들이 사랑의 마음으로 들으면 소통은 원활해질 수 있다. 문제는 어떤 쪽이 소통의 문을 닫으면 대화가 중단된다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교만한 자들에게 진리를 감추시고자 비유로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소통이 단절되는 것은 어느 한쪽의 교만과도 관련이 있다.

저자는 신학자, 즉 교회에서 목사의 역할에 대해 합리적으로 지적하고 있으나 권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다. 교회에서 목사가 제대로 사역하려면 교인들과의 소통이 필수적이며, 이 사안에는 하나님의 주권과 권위에 대한 이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먼저 하나님이 교회를 위해 목사를 세우셨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교인들은 그 사실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소통의 문을 열어 두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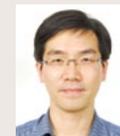
나는 프린스턴신학교의 찰스 하지(Charles Hodge) 박사가 주장한 보수적 반다윈주의에 전적으로 동의할 수 없다. 그는 자연에 나타난 계획성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다고 믿었다. 예를 들어 눈의 구조를 보면 그것이 계획되어 나타난 산물임을 믿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에 대해 찰스 험멜(Charles Hummel)은 하지 박사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믿음뿐 아니라 종의 고정성과 과학의 확실성에 대한 철학적 신념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나는 창조주 하나님과 종의 고정성은 믿지만 과학의 확실성은 믿지 않는다. 과학으로 하나님을 증명할 수는 없다.

저자는 아우구스티누스의 창세기 1장 해석을 인용하

면서 창세기 저자의 의도대로 해석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창조에 대한 아우구스티누스의 주장은 보수적 다윈주의와 상통한다.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창조하실 때 발전하고 진화하도록 의도적으로 설계하셨다는 것이다. 나는 이 입장에도 동의할 수 없다. 씨앗의 형태로 창조된 피조물이 특정한 종으로 정착하도록 섭리하셨다는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흙으로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셨다는 말은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절대주권을 가진 동일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라도 창세기 1,2장의 해석이나 창조의 방법에 대한 견해는 다를 수 있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진 존재라도 창조는 이해 밖의 일이다. 이런 어두운 무지 속에서도 신자들은 루터가 말한 '십자가 신학'의 소망을 발견한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따라 부활한 모든 신자들도 그때에는 창조사역을 이해하고 함께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지금 신자들에게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정신을 분별하여 드러내는 일이 숙제로 남아있다.

저자는 이 책에서 신학의 필요성과 역할에 대해 자신의 경험을 빌어 현실적으로 설명해주고 있다. 또 일반 신자들이나 목사, 그리고 신학자들이 신학의 뿌리를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지적한다. 또한 진화론에 대한 그의 주장에 모두 동의할 수는 없지만, 신학자가 현대 사상에 공언해야 한다는 주장의 실례도 보여주었다. 저자가 들려주는 진솔한 경험담에 공감할 수 있었다. 합리적 신학의 한계라든지, 변증과 복음 전파의 차이 등을 논할 때에는 내 마음도 뜨거워졌다. 많은 신자들이 신학에 대한 저자의 생각을 나누고 삶 속에서 믿음의 지성을 드러내기 바란다.



박종진 서울대학교 축산학과에서 학사,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미국 보스턴대학교 생물학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메사추세츠 주립대학교 심리학과,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뇌질환연구소, 한국과학기술원 생명과학과 등에서 연구원을 역임했다. 현재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생리학교실 부교수로 재직 중이며, 동물 행동의 신경조절에 대하여 연구하고 있다.

광장에 선 기독교

: 공적 신앙이란 무엇인가?

장수영 (포항공과대 교수, 기독교학문연구회 학회장)

이 책의 원제는 『공적 신앙(A Public Faith)』이며 부제는 <그리스도인이 공공 선에 기여하는 방안(How Followers of Christ Should Serve the Common Good)>이다. 신앙은 공적 영역에서 반목과 불화를 일으키는 종교적 전체주의가 될 위험이 있으므로, 사적인 영역에서만 향유되도록 제한되어야 한다는 세속주의적 사고가 크게 공감대를 얻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다. 그러니 “공적 신앙”이라는 말이 낯설고도 어색하며 신선히 다가오기도 한다.

볼프는 니체나 마르크스 같은 영향력 있는 수많은 학자들의 예상과 다르게, 오늘날 공적 영역에서의 신앙은 결코 주변으로 밀려나거나 소멸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그 중심에서 번성하고 있다고 주장한다(171-173쪽). 대중이 원하고, 서로 다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지역적으로 나뉘지 않고 섞여 살아갈 수밖에 없는 현실이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이다(11-12쪽).

공적 영역에서 종교가 번성하는 현 상황에서 신앙을 사적인 영역에서만 향유되도록 제한해야 한다는 세속주의적 주장은 점차 실효성을 잃게 될 것이다. 따라서 각자의 신앙 안에서 공공 선 도모와 관련된 자원을 찾아 그것을 공적 영역에서 적극적으로 향유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볼프의 주장이다. 즉, “기독교의 신념을 약화시키지 않고 오히려 확실하게 지키며 그것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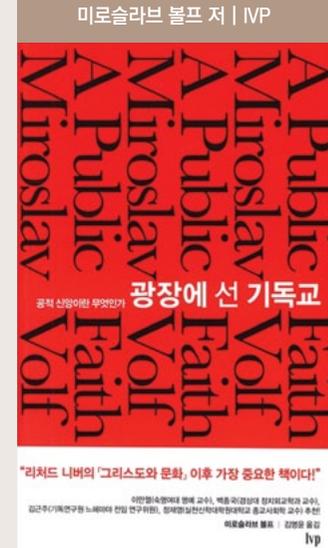
기쁘게 실천하는 데 도움을 주는”(21쪽)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볼프의 목적이다.

『배제와 포용』이라는 책에서 “포용”을 네 단계로 나누어 자신의 논지를 흥미롭게 묘사했던 것과 유사하게, 볼프는 이 책에서 “상승”과 “회귀”라는 움직임을 이용한다. 네 개의 장으로 구성된 1부에서는 참된 예언자적 신앙은 상승과 회귀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여기에 장애가 일어날 때 문제가 발생된다고 보았다.

“상승”은 모세가 시내 산을 오른 것과 같이 수용적 자세로 신을 향해 나아가 파악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여기서 장애가 생기면, 하나님이 좁은 범위로 축소되거나 우상으로 대체된다는 것이 볼프의 주장이다.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파악하는 데 장애가 발생하면, 하나님이 한 개인이나 부족 혹은 국가의 유익을 추구하기 위해 동원되는 수단으로 전락하게 된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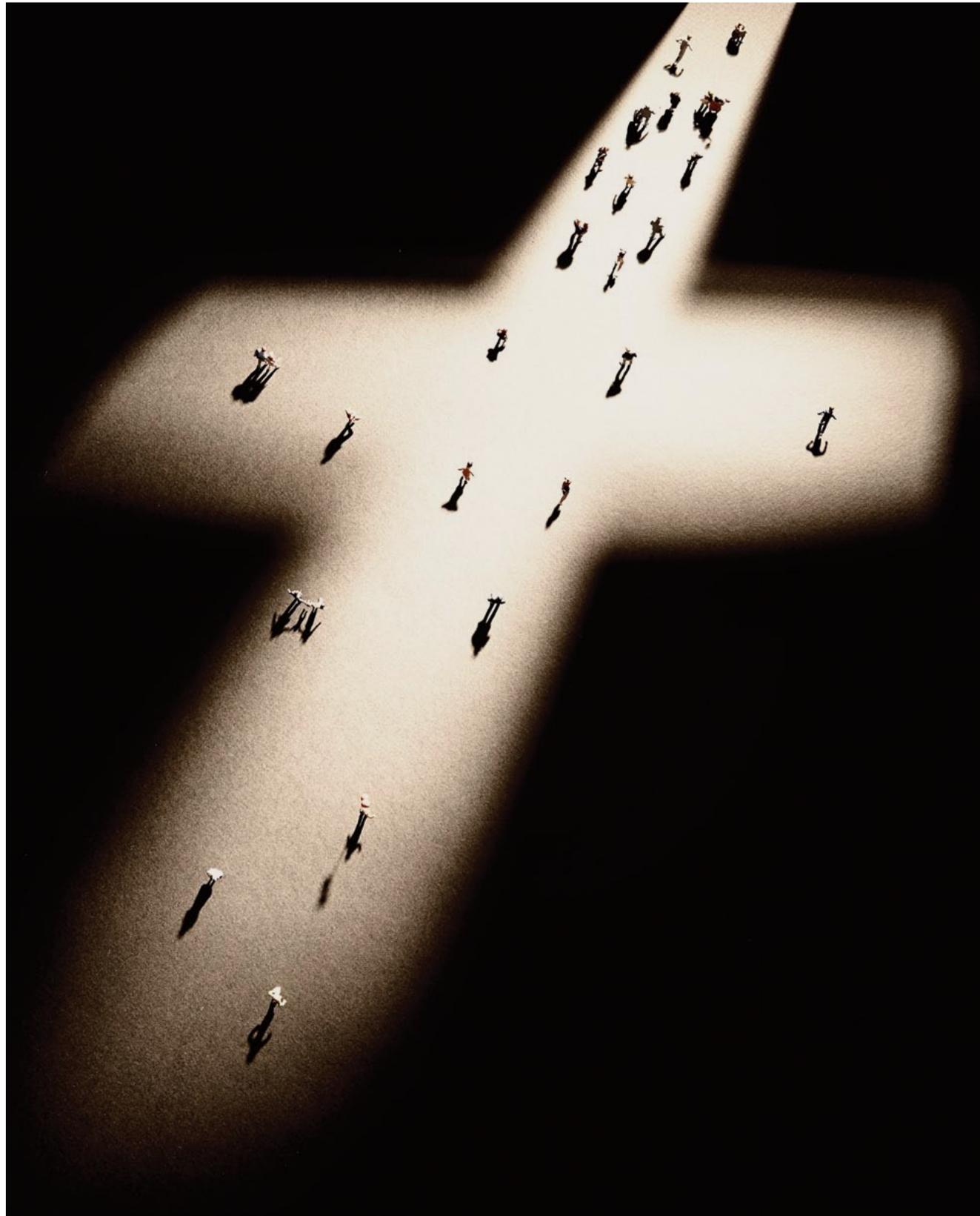
“상승”이 수용적인 자세를 요구한다면, “회

귀”는 창조적인 행위를 필요로 한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구원과 축복의 의미가 축소되면, 세상과의 연관성을 찾지 못해 세상으로부터 물러나는 “황량한 회귀”가 발생하는데, 이 “회귀”에서의 기능 장애를 볼프는 “나태함”이라 부른다. “회귀”에서의 기능 장애는 “강요”로 나타나기도 하는데, 성경에 나타난 유일신 사상은 폭력적이며 성경에 나타난 창조, 구속 그리고 재창조의 메시지는 주어진 환경을 강제적으로 바꾸는 파괴적 요소를 담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볼프는 다신론이 유일신 사상보다 오히려 더 폭력적일 수 있으며 십자가에 나타난 “환대”의 메시지를 통



해 올바르게 해석하면 성경은 결코 폭력적이지 않으며, 오히려 만물과 인류의 번영을 지향하고 있다고 반박한다.





세 개의 장으로 구성된 2부에서는 어떻게 기독교가 공공 영역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안을 논한다. 독특한 “정체성”과 “차이”로 인해 기독교인은 공적 영역에서 적응, 순응 혹은 철수라는 태도를 취해야 했다. 볼프는 이 책에서 참여라는 자세를 제안한다. 신앙의 지혜는 결코 강요해서는 안 되며 선물처럼 서로 주고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주지만 말고 받기도 하며, 서로 다른 신앙에 대해 불편부당의 입장으로 “남이 네게 해주기를 바라는 대로 그들을 대접하라.”는 황금률을 실천하라는 것이다.

결론을 맺으며 볼프는 “정치적 다원주의”라는 입장을 제안한다. 사실, 성경의 말씀이 유일한 진리라는 교리와 다원주의는 정면으로 충돌된다. 기독교적 원리에 따르면 결코 진리는 여러 개일 수 없다. 그러면 “정치적 다원주의”는 결코 양립할 수 없는 기독교적 진리와 그것에 반하는 주장을 무분별하게 섞은 혼합주의일까? 무엇이 옳은 답인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확실한 것은 볼프만큼 이 시대의 포스트모더니즘을 잘 이해하는 사람도 드물다는 것이다. 스스로 밝혔듯이 그는 결코 다원주의를 옹호하지 않는다. 그가 말하는 정치적 다원주의의 이념은 “네가 대접받기를 바라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는 황금률의 실천이다.

볼프의 글은 언제나 그렇듯이 통쾌한 것이 매력이다. 현대주의와 포스트모더니즘 모두를 비판하며, 성경 이야기 곧 그리스도의 십자

가에 담긴 가르침으로부터 매우 호소력 있는 대안을 찾아내는 그의 거침없는 지적 행보는 경쾌하기 그지없다. 하지만 유대교와 이슬람, 기독교가 모두 “아브라함 전통”이라는 공통의 기원을 갖는다는 점에 주목하는 것은 보수적인 신앙을 견지하는 이들에게 위험천만해 보일 수 있다. 아마도 아브라함 전통으로부터 세 종교의 “평화”를 일궈낸 자원을 찾아보려는 진정성에서 비롯되기는 했겠지만, 자칫 평화는 얻되 진리를 잃게 되는 비용을 치르게 될까 걱정이 되는 것도 사실이다. 그럼에도 공적 신앙을 찾아보려는 볼프의 기획에 찬사를 보낼 수밖에 없는 것은, “공적 신앙”을 찾아 그 기초 위에 공공 선을 건설하는 것이 포스트모던 시대의 요청이자 다원성이 인정되는 오늘날의 복잡한 정치적 지형 위에 평화적 공존을 이루어 내는 중요한 과제이라 여겨지기 때문일 것이다. 오늘날, “평화”를 갈망하는 모든 기독교인들이 꼭 읽어야 할 책이다.



장수영 현재 포항공과대학 산업경영공학과 교수로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실행위원이며 연구본부 본부장이자 기독교문연구회 학회장으로 섬기고 있다. (사)나눔과 기술, 크리스천 과학기술인 포럼의 공동대표이다.

교회영역

행복을 위한 불편레시피 30

기윤실 자발적불편운동 실천가이드북

지난 2012년부터 자발적불편운동을 펼쳐 온 (사)기독교윤리실천운동이 <행복을 위한 불편레시피 30>을 발간했다. '자발적 불편'은 스스로 편리를 누릴 권리를 포기하고 양보하여 조금 불편하게 사는 삶이며 이웃과 약자를 위해 나눔의 삶으로 나아가는 모습이다.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부분에서 자발적 불편을 실천하자는 기윤실의 자발적불편운동은 편하게 사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십자가 정신으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권고한다. <행복을 위한 불편레시피 30>은 집중적으로 실천할 행동 30가지를 선정해 자발적불편운동을 삶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정리한 책이다. 그 중 교회영역에서 실천가능한 일들을 소개한다.

교회 공간, 지역사회를 섬기는 통로로!

백주년기념교회는 예배 공간은 물론 세미나실과 선교기념관, 주차장 등 교회의 모든 공간을 협의와 신청 하에 다양한 기관과 사람들에게 개방하고 있다. 교회의 문턱을 낮추고 세상과 소통하고자 하는 섬김의 정신으로 시작된 것인데, 여기에는 재정과 관리의 문제, 교회 내부적으로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등의 어려움이 따른다. 그러나 지역사회의 일부로서 그 지역사회를 섬기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자연스러운 통로가 될 것이다.

투명한 재정관리, 회복되는 공동체성

교회사역의 궁극적 목적은 결과를 내는 것이 아니다.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 땅의 구성원들을 사랑하는 과정으로, 이것이 바로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이다. 그러므로 교회의 재정관리에도 사역의 자금줄 역할뿐 아니라 공동체 구성원인 교인들이 같이 이해하고, 공감하고, 결정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러한 과정에는 불편이 따르지만, 그러한 불편은 교회가 교회답게 세워져 가는 과정이자 공동체성을 회복하는 과정이다.

장애인의 접근에 대한 교회의 책임

장애인 성도에게 교회는 여전히 접근하기 어려운 장벽으로 둘러싸인 곳이다. 장애인 성도의 접근성을 준비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며, 교회의 당연한 의무이다. 장애인 성도가 사회적 약자이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지체이기 때문에 예배, 교육, 교제, 섬김, 구제에 함께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장애인 성도가 교회의 모든 활동에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게 준비해야 한다.

주일 주차대란은 이제 그만!

자가용을 타고 교회에 출석하는 교인들이 늘어나면서 교회 주변의 주차문제가 새로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몇몇 대형교회 예배의 시작과 끝 시간은 무법천지가 된다. 교통 혼란으로 많은 민원과 분쟁이 야기되고 있다. 한 지역에 속한 교회로서 마땅히 그 지역을 배려하고 섬겨야 한다. 자가용 대신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카풀을 시도해보면 어떨까? 교회 주변의 유료주차장을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교회 차원에서는 건축 시 충분한 주차공간을 마련하거나 자체적으로 캠페인을 열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도 있을 것이다.

자발적 불편을 감수하는 그리스도인의 간식 사기

교회학교와 각종 행사들, 매주 진행되는 각종 모임 등에 필요한 음식을 마련하는 것은 생각보다 까다롭다. 한창 자라나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간식은 성장을 고려한 친환경적 재료로 만든 것을 추천한다. 유기농 과자나 사회적 기업에서 만든 빵, 과자류도 좋다. 사회적 약자들을 고용하는 사회적 기업의 제품을 구매하는 것은 구제사역에도 동참하는 것이다. 아예 교회의 구매 활동을 포괄적으로 구제사역과 접목해 담당하는 부서를 꾸리는 것도 좋다. 이런 부서가 창의적으로 활동하기 시작하면 새로운 차원의 구제와 선교가 열리게 된다. 거룩한 예배, 거룩한 관계와 함께 거룩하게 소비하고 거룩하게 먹고 마시게 되기를 바란다.

+plus

교회에서 이런 것들도 할 수 있어요!

1. 주택가 주변 교회에서는 늦은 시각에 통성 기도, 찬양 모임 지양하기
2. 공공장소에서 소그룹으로 모임 때는 주변 사람들을 배려하기
3. 지역 독거 어르신 보살피기(도시락 배달)
4. 자살자 유가족, 성폭력 피해자 등을 위로하는 예배드리기
5. 장애인, 노숙인, 이주노동자, 성소수자 등을 환대하기
6. 좋은 활동하는 시민단체 후원하기
7. 교회 주변의 거리, 놀이터, 지역 청소하기
8. 여성과 아기를 배려한 공간 마련하기
9. 어르신, 자녀 동반 가족부터 식사하기
10. 남녀 구분 없이 식당 봉사하기
11. 상시적으로 물품 공유하기(바자회, 아이들 장난감, 도서 등)
12. 양성평등 교육하기: 교회 내 성역할에 대한 서로의 이해가 필요
13. 중요 의사결정 과정에 여성·청년 비율 높이기
14. 나이·지위에 상관없이 서로 존중하기(언어, 사생활, 신체접촉)
15. 재생종이로 교회 주보 만들기
16. 건축할 때 채광, 단열을 고려하기(조명 및 냉/난방 에너지 절약)
17. 전기절약형 교회 십자가 설치 및 최소한으로 점등하기(빛 공해)
18. 꽃꽂이 생략 또는 너무 화려하지 않게 하기
19. 연말연시 행사는 소박하게 운영하기
20. 현금거래를 지양하고, 세금계산서 제대로 받기
21. 악보 무단 복제하지 않기
22. 소프트웨어 정품 사용하기

※기윤실에서 발행한 <행복을 위한 불편레시피 30>을 요약하였으며, 무단 전재와 복제를 금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기윤실의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www.cemk.org

2014년 60시간 영화제

기독교미디어아카데미+고신대학교 문화선교학부



금년에 3회를 맞은 "60시간 영화제".

이번에는 지난 5년간 기독교미디어아카데미가 배출한 1기에서 10기까지의 졸업생들과 고신대 문화선교학부가 함께하였다.

참가자들에게 공통의 필수제작요소를 제시하고 장르를 추천·선정하여 3박 4일간 기획, 각본, 촬영, 제작, 시사까지 진행하는 60시간 영화제는 영상 속에 기독교적 가치를 담은 메시지를 전달할 기독교 미디어 군사를 세우는 실제적인 훈련 프로그램이다. 각 영상은 CMCA(기독교미디어아카데미) 홈페이지(<http://cmca.worldview.or.kr>)에서 볼 수 있으며, 10월 6일부터 16주간 하반기 기독교미디어아카데미(이하 기미아)가 진행된다.

60시간 영화제 참가자 공통 필수제작요소

구분	내용
주제	너의 목소리가 들려
기획의도	혼란한 사회 속에 내던져진 우리에게 들려오는 도둑의 목소리. 우리를 인도하는 샅꾼 목자는 누구(혹은 무엇)입니까?
주인공 이름	남자: 이종석 여자: 이보영
영화 속 필수 대사	"양은 그 음성을 듣나니" (요 10:3)
필수 로케이션	바다
필수 소품	열쇠
장르 (추천)	로맨스 / 판타지 / 스릴러 / 액션 / 코미디 / 페이크다큐 / 드라마 / 시대극

기미아1조

제목: **너의 목소리가 들려**

장르: 드라마

줄거리: 늘 헤드폰을 끼고 세상과 단절된 채 살아가는 종석. 그런 종석에게 엄마는 늘 사랑을 표현하지만, 그는 차갑기만 하다. 하지만 엄마에 대한 고마움을 표현하고자 라디오에 사연을 쓰는데...

주소: <http://cmca.worldview.or.kr/gallery/videos/document/3697>



기미아2조

제목: **HIM**

장르: 판타지

줄거리: 하경은 홍콩으로 여행을 떠나면서 친구인 보영에게 집을 봐달라고 부탁한다. 떠나기 전 휴머노이드는 절대 만지지 말라고 신신당부하지만, 호기심을 이기지 못한 보영은 결국 휴머노이드를 작동시키게 된다. 그렇게 보영은 잘생긴 휴머노이드와 행복한 시간을 보내게 되는데...

주소: <http://cmca.worldview.or.kr/gallery/videos/document/3698>



기미아3조

제목: **목소리 너머**

장르: 시대극

줄거리: 친구와 바다에 놀러가서 휴대폰을 잃어버린 보영은 자신의 번호로 전화를 건다. 전화를 받은 사람은 놀랍게도 1992년에 살고 있는 미혼 모 종석. 원치 않는 임신으로 절망하여 생을 마감하려던 종석은 이 전화 한통으로 변화를 맞게 되는데...

주소: <http://cmca.worldview.or.kr/gallery/videos/document/3699>





고신대 1조

제목 : 그게! 그게! 알고 싶다

장르 : 페이크 다큐

줄거리 : 우리는 만족스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만약 지금 우리에게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는 내용의 문자가 온다면,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 생활고에 시달리는 종석과 명품이 갖고 싶은 보영은 의문의 문자 한 통을 받고 해서는 안 될 선택을 하게 되는데...

주소 : <http://cmca.worldview.or.kr/gallery/videos/document/3700>



CMCA 60시간 영화제 후기
함께, 더불어

이관형 (기미아 2기)

고신대 2조

제목 : 섬 & 섬

장르 : 액션

줄거리 : 신앙 수련회에 참석한 종석에게 평소 마음에 두고 있던 보영의 전화가 걸려온다. 보영이 종석에게 무언가 고백하려는 순간 휴대폰이 꺼지고, 서둘러 배터리를 갈아 끼우려 하지만 수련회 진행측에 휴대폰을 빼앗기고 만다. 보영의 고백이 궁금했던 종석은 마침 문이 열려 있는 진행측 사무실에서 휴대폰을 빼오기로 결심하는데...

주소 : <http://cmca.worldview.or.kr/gallery/videos/document/3701>



고신대 3조

제목 : 단 한 가지 방법

장르 : 코미디

줄거리 : 화장실이 급했던 보영은, 잠겨 있는 화장실 문에 좌절한다. 마침 종석이 의문의 열쇠를 들고 나타나지만, 장난을 치다가 잃어버리고 만다. 화장실 문을 열기 위한 보영과 종석의 처절한 싸움이 시작되는데...

주소 : <http://cmca.worldview.or.kr/gallery/videos/document/3702>



고신대 4조

제목 : 조별 과제

장르 : 로맨스

줄거리 : 풋풋한 새내기 종석과 보영. 조별 과제를 하다가 첫눈에 반해 사랑에 빠지게 된다. 한편 조장은 무책임한 조원들에게 모이라고 최후 통첩을 보낸다. 하지만 그날은 종석과 보영이 여행을 떠나기로 한 날. 여행을 무조건 가야 한다는 보영. 그런 보영과 조별과제 모임 중 선택을 해야 하는 종석, 과연 종석의 선택은?

주소 : <http://cmca.worldview.or.kr/gallery/videos/document/3703>



“영캠 못오냐?”

짧고 간결한 장유진 PD님의 카톡 문자에 약간의 망설임과 설렘이 교차하면서 선택 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마침 대학원 학기가 끝나고 방학이 시작되어, 학교에서 영상 장비까지 빌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며칠씩 밤을 지새워야 한다는 것이나 단시간에 시나리오 작업부터 촬영·편집까지 해야 하는 상황들이 결코 만만치 않아 보였습니다. 그래도 영상캠프에 참여하면 영상 촬영 기법부터 편집 프로그램 사용법까지 배울 수 있겠다는 생각에 참여하겠다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맥북 가방과 카메라 가방, 삼각대와 개인 짐을 넣은 캐리어를 들고 집에서 용산역으로 이동할 때까지는 짐만큼 마음의 부담도 컸지만, 막상 반겨주시는 장PD님과 아카데미 동문들을 만나니 기대감으로 충만해졌습니다.

부산 고신대에서 고신대 학생들과 아카데미 동문이 어우러져 영상제를 시작하는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럿보다 혼자 만드는 영상이 결과물이 더 좋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서로 모이기를 힘쓰고 합심하여 하나의 결과물을 만들어내야 한다.”는 문홍철 교수님과 강진구 교수님의 말씀이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교회에서 수련회 홍보물 영상 등을 만들 때 누가 함께하는 것보다 혼자 기획하고 감독하여 만드는 것이 더 편하고 쉬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럿이 함께 작업하다보면, 이합집산 되기 쉬우니 어느 정도 우려가 되는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기미아의 전설적(?) 기수인 2기이자 참가자 중 최고 만행이라고 다섯 명으로 구성된 팀의 조장을 맡았습니다. 우리 조는 맥 유저들 중심으로, 현재 PD일을 하고 있거나 영상제에 이미 여러 번 참가했던 조원들도 있었습니다. 게다가 아직 10대인 막내까지. 개성이 각기 다른 사람들을 잘 이끌 수 있을지 살짝 걱정이 되었습니다. 장르와 여분의 장비를 준비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장르는 시대극을, 장비는 수중 카메라와 필요 없을 것 같은 슬레이트를 두 개나 뽑았습니다. 다소 실망한 상태로 시나리오 작업에 들어간 우리는 서로 의견을 냈지만 어떤 것도 만장일치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개인마다 취향이 있다 보니 동성애부터 화장실을 소재로 한 시나리오까지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사공이 많으면 산으로 간다는 말처럼, 기획자들이 모이다 보니 시나리오를 짜고 뒤엎는 작업이 반복되었고 시간은 어느새 새벽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우리 조의 첫날은 새벽 4시가 되어서 끝났지만, 소통이 단절된 가정에서 라디오라는 소재를 통해 가족의 사랑을 나타내자는 단순한 기획 의도만 겨우 정해졌습니다. 대략적인 내용은 회사 업무에 시달리던 아버지, 친구들의 자식 자랑에 할 말을 잃고 스트레스 받던 어머니가 딸이 라디오에 보낸 사연을 듣고 행복해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나중에 생각해보니 아버지를 섭외해야 하고 장소와 시간에 제약이 많아 또 다시 얽어질 수밖에 없는 시나리오였습니다.

회의를 끝내고 지쳐서 추운 줄도 모르고 잠들어 있던 우리에게 한 통의 문자가 왔습니다. 시나리오 회의가 끝나고 출근하려 부산의 집으로 돌아갔던 멤버로부터 온 문자였습니다. 우리가 잠들어 있던 그 시간에 그 친구는 밤을 새워 시나리오에 대해 고민했던 것입니다. 현역 PD인 그 친구는 나름의 생각과 아이템이 있었지만 모든 것을 내려놓고 아직 부실한 우리 시나리오에 대해 계속 고민했던 것입니다. 스스로 한계가 느껴져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기도하다보니 하나님께서 아이디어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 친구의 아이디어를 토대로 시나리오를 수정하다보니 현실성 있는 시나리오가 완성되었습니다. 평소 다른 사람들 앞에서 수화를 하는 엄마가 부끄러웠던 아들이 어느 날 라디오에 사연을 보내고 그 사연을 들은 엄마가 아들에게 사랑한다고 말로 고백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아들 역시 수화로 사랑한다고 표현합니다. 알고 보니 아들이 장애인이었다고 엄마는 그 아들에게 맞추느라 수화를 해야 했던 것입니다. 내용도 마음에 들었고, 등장인물이 둘로 좁혀진데다 장소와 소품도 간단하니 촬영도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촬영하는 시간들은 매우 즐거웠습니다. 부산의 아름다운 풍경을 카메라에 담으면서 자연스럽게 촬영하는 방법이나 음향, 조명 등과 관련하여 서로에게 배울 수 있는 시간을 가졌고 돼지국밥, 밀면 등 부산의 맛있는 음식들도 나누어 먹었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셨습니다. 고신대 조교님이 목소리로 출연해 주셨고, 기독교미디어 아카데미 2기 동기 집사님이 엄마로 출연해 주셨습니다. 아침마다 신선한 아침과 고급 햄을 넣은 토스트로 헌신해 주신 스태프도 있었습니다. 영상을 편집하는 과정에 장유진 PD님, 유지은 PD님, 강진구 교수님, 문홍철 교수님께서 때로는 직선적으로 때로는 칭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셨던 바램이 되어 주셨습니다.

드디어 마지막 밤을 보내고 각 팀이 만든 영상을 감상하는 시사회가 열렸습니다. 볼꺼진 강의실에서 진행된 시사회는 하나의 축제였습니다. 때로는 감동으로 때로는 웃음으로 완성된 영상을 감상하며, 고생스러웠던 촬영 과정도 생각났지만 보람으로 흐뭇하기도 했습니다. 또 기독교미디어아카데미 초창기 멤버이자 선배로서 프로페셔널해지고 작품의 완성도도 높아진 것에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시작에 배 때 전해주시던 말씀처럼, 혼자서 만들 수도 있지만 여럿이 함께 만들어 나간다는 것에 대한 의미를 제대로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함께 먹고 자고 고생하며 서로의 의견과 생각을 나누고 때로 양보하기도 하면서 각자의 달란트를 최대한 발휘했을 때, 하나님께서 도와 주셔서 좋은 작품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영상캠프는 정말 필요하고 소중한 프로그램입니다. 많은 학생들이 밤을 새가며 영상을 만들었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더 고생하고 수고해주신 교수님과 피디님들, 스태프의 헌신과 수고가 있었기에 이 프로그램이 더욱 알차고 유익하며 감사와 은혜가 넘칠 수 있었습니다. 고신대 교수님과 학생들, 기독교미디어아카데미의 모든 졸업생들이 이 영상캠프라는 좋은 경험을 통해 현장에 나가서도 좋은 하나님의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독교미디어아카데미 11기 모집

기독교미디어아카데미는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가 국민일보, CGN-TV 등 주요언론단체와 협력하여 성경적 세계관에 기초하여 다양한 사회문제를 분석하고 이해하며 1인 미디어 시대에 필요한 미디어 실무능력을 길러주는 교육프로그램입니다.

왜 기독교미디어가 필요합니까?

가능한 한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반영하고 철저히 공정하되 성경적 관점에서 이해하고 평가해서 설득력 있게 전달하는 매체가 많아야 한국교회와 그리스도인의 생각과 판단이 건전하고 행동이 신실해질 것이다. 이것이 기독교미디어아카데미를 개설한 이유이다!

— 손봉호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이사장

교육기간 2014년 10월 18일 ~ 2015년 1월 30일, 매주 토요일 오후 1시 ~ 6시
교육장소 서울 국제 크리스천 아카데미(SICA), CGN-TV

접수기간 2014년 7월 1일 ~ 2014년 10월 4일
접수마감 2014년 10월 4일 (토) 18:00
접수방법 기독교미디어아카데미 **온라인접수** [<http://www.cmca.or.kr>] ▶ '원서접수'
전형방법 서류전형 → 면접 (10/10-11 실시, 개별공지) → 합격자발표 (10/13)
교육비 등록금 350,000원 (총 14주 과정, 외부기관 후원으로 수업료 무료)
문의처 Tel. 02-745-7237 / E-mail cmca@worldview.or.kr (담당: 홍정석 간사)

*우수 학생에게는 취업추천서 발행 및 최우수 성적 1인에게는 장학금이 있습니다.

커리큘럼

기독교세계관
세계관이란 무엇인가? 김승욱(중앙대 교수)
기독교 세계관이란 무엇인가? 창조, 타락, 구속의 원리 신국원(총신대 교수)
포스트 모던 시대의 기독교적 초인 신국원(총신대 교수)
기독교 역사에 나타난 문화에 대한 관점 김승욱(중앙대 교수)
지식인들의 세계관, 세계관 훈련하기 상민(경원대 라브리 대표)
세계관의 외연화와 반 기독교 세계관 이송구(합신대 교수)

미디어 실무

시진으로 스토리텔링 하기 (1박 2일 영상 M, T), 개인영상 연출(이론, 촬영 및 제작, TV뉴스제작이론, 촬영 및 제작, 단편영화 제작) 3박 4일 영상캠프 진행
출판지음(단편영화 및 다큐 제작, 극장 필름포럼 상영)
기타 특강(터라티브 아트, 소셜미디어, 기독교 콘텐츠 제작의 이해 등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www.cmca.or.kr

(사)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재정보고 (2014년 6월 30일 마감기준)

수입 항목	세부 항목	금액	지출 항목	세부 항목	금액
경상수입	이사회비	1,150,000	인건비	일반급여	3,400,000
	임원회비	600,000		기타급여	550,000
	일반회비	4,162,500		소계	3,950,000
	기관후원금	4,000,000	경상비	사무실임대료	550,000
	기타후원금	170,000		사무실관리비	273,800
	월보구독료	760,500		통신비	185,110
	CTC후원금	320,000		우편료	66,070
	사무실후원금	500,000		소모품비	90,705
	기타	0		비품	137,500
				식비	412,350
		복리후생비		977,540	
		회의비		48,400	
		회계용역비		220,000	
기타수입	결산이자	16,134	연구지원비	도서구입비	0
기타수입	282,120	CTC후원금		347,965	
소계	543,290	소계		347,965	
학회	학회이사회비	100,000	출판(회지)	월드뷰구입비	2,000,000
	학회행사수입	10,000		발송비	673,950
	학회지심사비	280,000		소계	2,673,950
학회	저작권료	3,432,500	학회	학회강사료	0
	소계	3,822,500		학회자료제작비	0
				학회홍보및기타	0
당월 수입액	15,683,754	당월 지출액	10,926,930		
전월 이월액	20,266,848	차월 이월액	25,023,672		

* 회비수입 납부일 기준 적용 (일부 CMS 및 신용카드, 핸드폰 결제 시 납부일과 입금일에 차이가 있습니다.)

(주) 세상바로보기 재정보고 (2014년 6월 30일 마감기준)

수입 항목	세부 항목	금액	지출 항목	세부 항목	금액	
광고수입	월광고비	2,100,000	인건비	직원급여	1,600,000	
				기타급여	0	
	소계	2,100,000		소계	1,600,000	
기타수입	월드뷰판매비	2,000,000	제작비	교정비	160,000	
	사무실후원금	250,000		편집비	300,000	
	기타수입	154,970		디자인비	1,056,000	
				인쇄비	2,369,180	
				기타제작비	50,000	
				소계	3,935,180	
	미디어 아카데미	미디어기타	0	기타지출	세금	29,320
					기타	4,000
		소계	0		소계	33,320
	당월 수입액	4,508,270	당월 지출액	11,120,320		
전월 이월액	48,911,290	차월 이월액	40,240,145			

※(주)세상바로보기는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의 영리법인으로 월드뷰 발행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의 재정 내역은 본지와 홈페이지(worldview.or.kr)를 통하여 보고합니다.

후원에 감사드립니다

(2014년 6월 30일 마감)

회원후원

2천5백 박진호 3천 김성권 3천5백 Susanto Agus, 가월현, 구재형, 권기웅, 김경현, 김고운, 김동찬, 김민지, 김성욱, 김수경, 김영주, 김은호, 김찬호, 김태우, 김형근, 김희원, 박사라, 박상희, 박준현, 박지만, 생명의강, 엄지은, 영음사, 유성욱, 이평준, 정세일, 정필규, 조성진, 지경순, 진성자, 최원길, 최희정, 하태실, 함께하는교회, 황귀희 5천 강은주, 구성덕, 권명중, 권지연, 김경희, 김가용, 김기현, 김대용, 김미정, 김병국, 김성은, 김성찬, 김영윤, 김은경, 김정영, 김정선, 김정원, 김준, 김제우, 김준, 김지수, 김철수, 김태윤, 김형아, 김해장, 노승욱, 노주하, 박광재, 박상근, 박승룡, 박진희, 박찬규, 배기선, 배도환, 범경철, 손세용, 손영경, 손영일, 송동민, 송시성, 신기혁, 신찬용, 심정하, 양혜영, 우수민, 유은자, 유충열, 윤경숙, 윤종성, 이경미, 이근배, 이길수, 이노윤, 이덕재, 이민화, 이영홍, 이인수, 이종혁, 이항숙, 임선재, 임춘택, 임형준, 임효숙, 장현일, 전광학, 전정진, 전중국, 정병재, 정봉현, 조은아, 조인진, 최광수, 최동희, 최영대, 한배선, 하재일, 홍승기 7천5백 강찬진, 고상섭, 김영숙, 김영환, 김은미, 김은민, 김태태, 민수진, 박현빈, 방선기, 영암교회, 이병주, 이상훈, 이은수, 이주희, 전영식, 정원길, 진영규, 최경복 1만 David Han, 강석현, 강승모, 강연정, 강은정, 강호영, 강효식, 고선욱, 고연경, 고재호, 고현경, 곽정인, 구재환, 구준희, 권경호, 권민기, 권순범, 길원평, 김경식, 김경식, 김경원, 김경호, 김경화, 김고운, 김규욱, 김근배, 김기현, 김남진, 김동우, 김동준, 김막이, 김미혜, 김범식, 김보경, 김상범, 김성경, 김성민, 김성은, 김성인, 김세령, 김세중, 김수홍, 김승남, 김승호, 김양호, 김영남, 김영석, 김영호, 김요한, 김용석, 김우신, 김원호, 김윤권, 김은덕, 김은정, 김은태, 김은혜, 김은혜, 김재정, 김정모, 김정일, 김정진, 김중국, 김중훈, 김진성, 김진아, 김관민, 김혁, 김형길, 김홍섭, 김홍제, 김홍숙, 나윤숙, 남서희, 라영환, 류지호, 류현모, 마민호, 박광국, 박경원, 박기연, 박능안, 박동현, 박두서, 박두한, 박상호, 박성인, 박시운, 박종원, 박준모, 박준영, 박진규, 박창규, 박창우, 박한배, 박해일, 박현경, 박혜경, 박희수, 배인교, 배지연, 백경은, 백은미, 백은석, 백현준, 서유미, 서화진, 성광원, 성명수, 소종학, 손현탁, 송중철, 송철호, 신경규, 신동민, 신상형, 신성자, 신진진, 신현주, 신현규, 신호기, 신효상, 안병열, 안 석, 안영혁, 안용준, 양종태, 양행모, 양혜원, 오경옥, 오성호, 오지순, 옥재호, 유건호, 유경상, 유경숙, 유동준, 유상원, 유영준, 유은희, 유익신, 유지황, 유창은, 유해무, 유화원, 유희진, 윤상현, 윤선석, 이갑두, 이 강, 이경숙, 이계성, 이권철, 이규현, 이기훈, 이길형, 이다은, 이명동, 이명복, 이명숙, 이명현, 이문일, 이상급, 이상우, 이상수, 이상환, 이상수, 이승엽, 이시영, 이언구, 이연의, 이용국, 이원배, 이원준, 이윤석, 이윤재, 이은미, 이은자, 이은주, 이은혜, 이정규, 이정기, 이정길, 이정현, 이종국, 이준성, 이지숙, 이지연, 이진영, 이화성, 이해리, 이호선, 이환일, 이희진, 임동진, 임수연, 임 영, 임일택, 장승재, 장영창, 장옥경, 장유진, 장인숙, 장태준, 전동일, 전영희, 전성구, 전장원, 전종화, 정경식, 정동섭, 정문선, 정상록, 정세준, 정용수, 정은경, 정은희, 정정숙, 정진우, 정현규, 정현주, 정화원, 제양규, 조미연, 조백형, 조승희, 조용현, 조은국, 조은향, 조재천, 조현용, 조혜경, 조혜신, 주경식, 차봉준, 차유림, 차정규, 최세열, 최영수, 최영연, 최익수, 최진우, 최진호, 최한빈, 최호영, 추진연, 태영숙, 하성만, 하진호, 한인관, 한정호, 한진영, 한혜실, 한화진, 하찬영, 허 현, 현승건, 현하나, 홍선호, 홍정석, 홍준호, 황기철, 황도웅, 황세환, 황의서, 황태연, 황혜숙, 황혜정 1만5백 김경휘 1만5천 김상욱, 김선화, 김효순, 정상섭, 최동원 2만 강대훈, 강용환, 김광순, 김용식, 김인숙, 김정호, 노경순, 노용환, 배성민, 배은경, 변우진, 심인숙, 우시정, 이 건, 이명희, 이인아, 장재열, 조신권, 조창근 2만5천 문석윤 3만 권용갑, 김경민, 김경희, 김동원, 김방룡, 김윤정, 김지연, 문준호, 박상진, 박선현, 박영주, 서성록, 양성만, 오의석, 우병훈, 이근호, 이대희, 이은실, 임희욱, 장수영, 최용준, 추대화, 황정진 4만 이덕영 4만5천 세린교회 5만 김민철, 김성락, 김시호, 백성희, 신국원, 윤석찬, 정은애, 정희영, 조성대, 채기현, 최현일, 한윤식, 현은자 5만5천 이윤희 6만 강진구, 조우성 8만 권정아 10만 김원수, 김익원, 박상은, 서진희, 손봉호, 송인규, 양인평, 윤완철, 전광식, 최태연 21만 정영록 80만 김승욱

계 7,563,000원

기관후원

5만 개봉교회, 다운공동체교회, 대구서교회, 새길침례교회, 새언약교회, 성덕중앙교회, 중앙대학안성교회, 한가죽교회
10만 금성교회, 남서울은혜교회, 부천침례교회, 산정원교회, 상록회계법인, 새로남교회, 성덕교회, 열린교회,
예심교회, 주님의은혜교회, 천안중앙장로교회, 카이스트교회
20만 서울영동교회, 수영로교회 30만 100주년기념교회
70만 사랑의교회 100만 새로운교회

계 4,000,000원

『월드뷰』는 후원을 통해 만들어집니다.

『월드뷰』가 여러분 삶 속에 동행할 수 있도록

후원의 손길을 기다립니다.

후원계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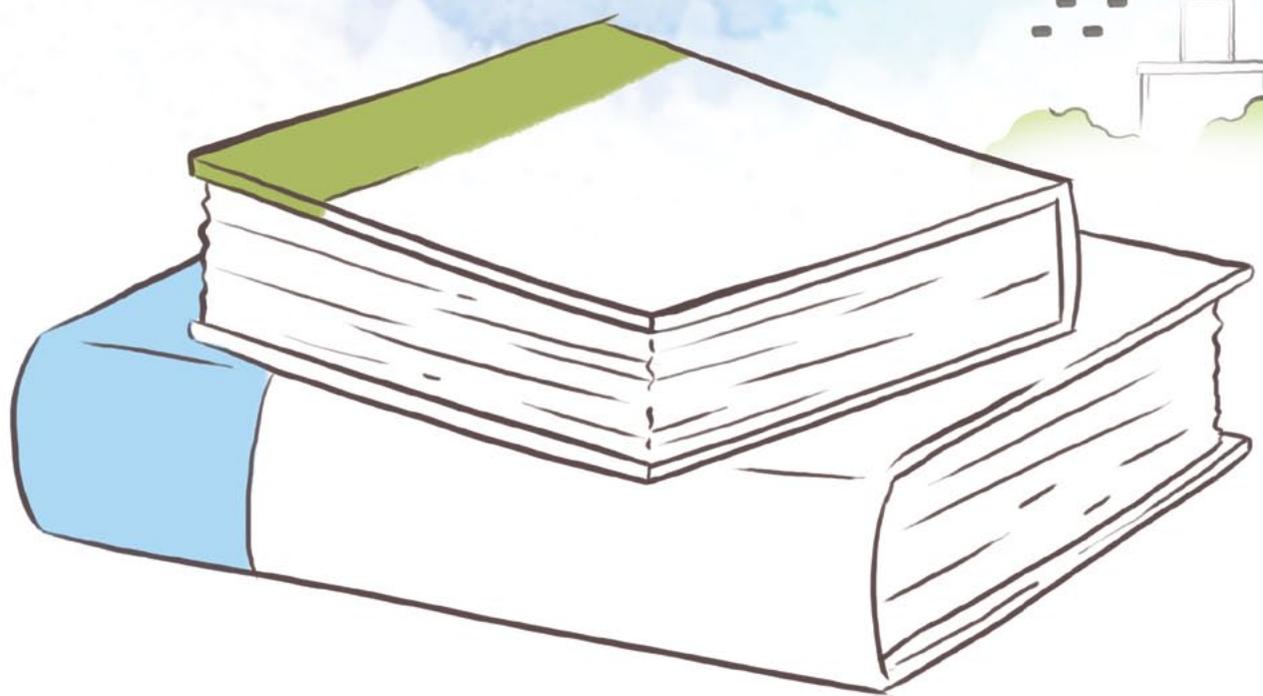
국민은행 602-01-0667-971
(예금주: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회원 여러분들의 귀한 후원에 감사드립니다.
※미납회비가 이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 애매한 전치사

을식이 미국에 갔다.
 뉴욕을 구경한 다음 워싱턴을 방문하기로 했다.
 미국까지 비행기로 갔으니 워싱턴에는 기차로 가기로 했다.
 역에 가서 기차표를 사야 하는데 “워싱턴까지”를
 영어로 “투 워싱턴” (to Washington) 해야 할지
 “포 워싱턴” (for Washington) 해야 할지 자신이 없었다.
 한참 고민하다 “엠티. 모르겠다. 아무거나 해 보자.” 하고는
 매표원에게 “투 워싱턴” 했다. 그랬더니 웬걸 기차표 두 장을 끊어주었다.
 “아차 잘못했구나. ‘투’가 아니구나.” 판단하고
 “노. 노. 포 워싱턴” (No. No. for Washington) 했다.
 그랬더니 이게 웬일이냐! 기차표 두 장을 더 끊어주었다.
 표가 넉 장이나 되는데 어떡하지?

“영어는 역시 미개 언어야! 전치사와 숫자도 구분 못하니.”



WORLDVIEW NEWS

[매월/모집] 기독교 대학생

기독교대학원생 모임이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 오후 5시에 있습니다. 동역회의 교수님들을 멘토삼아 함께 담소를 나누며 연구를 준비하는 모임입니다. 관심있는 분들의 참여바랍니다.

- 일시 2014.8.29(금) 오후 5시
- 장소 삼일교회 C관 2층(4호선 숙대입구역 10번출구에서 골다리 지나 오른쪽 맞은편)
- 문의 info@worldview.or.kr / 02-754-8004
- ※ 변동이 있을 수 있으니 꼭 홈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학회지] <신앙과 학문> 19권 3호 투고접수

한국연구재단 등재지<신앙과 학문>은 2014년 3호의 투고접수를 받습니다. 학문에 관심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의 투고를 기다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19권 3호 발행일 9월 30일
 19권 4호 발행일 12월 31일

- 편집위원장 메일 faith.scholarship@gmail.com
- 문의 02-3272-4967(학회)

[학회] 제31회 기독교학문연구회 기독교학문학회 발표논문 접수

기독교학문연구회가 제31회 기독교학문학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학술대회의 주제는 “학문을 통한 선교적 만남”으로 여러 학회와 공동주최로 백석대학교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기독교학문 연구에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무국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시 2014.11.8(토)
- 장소 백석대학교 서울캠퍼스 (서울특별시 서초구, 2호선 방배역)
- 논문발표 신청마감 2014. 9.30(화)
- 문의 gihakyun@daum.net / 02-3272-4967 (학회)
- 홈페이지 www.worldview.or.kr

월드뷰 7월호 사과문

지난 호 표지에서 니콜라스 월터스토프(Nicholas Wolterstorff)의 이름이 잘못 게재되었습니다. 이에 사과드리며 앞으로 더욱 신중한 <월드뷰>가 되겠습니다.

- (정정) 니콜라스 월터스토프 Nicholas Wolterstorff → 니콜라스 월터스토프(Nicholas Wolterstorff)

※ 변동이 있을 수 있으니 꼭 홈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임원 보고] 이사회 및 실행위원회 실시

지난 7월 7일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이사회 및 실행위원회가 실시되었습니다. 자리를 빛내 주신 임원분들에게 감사한 감사드립니다.

이번 이사회 결의사항으로는 비등기 이사의 임기를 이사의 임기와 동일하게 4년을 기간으로 정하였으며, 사무국 간사 1인(신호영 대표간사)을 9월에 동역단체인 VIEW에 파견하기로 하였습니다.

[사무국 보고] 간사 리트릿

지난 7월 21~22일 간사 리트릿을 강원도 양양의 라브리로 다녀왔습니다. 라브리의 섬김에 깊이 감사인사 드립니다.





밴쿠버기독교세계관대학원

기독교 계통에서 사역을 준비하고 있거나
캐나다에서 유학이나 안식년을 계획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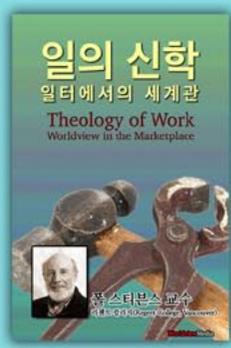
지원 안내

1999년부터 캐나다 최고의 기독교대학인 Trinity Western 대학의 신학대학원인 ACTS(학장: Ken Radant 교수)에서 VIEW(원장: 양승훈 교수)가 개설하고 있는 기독교세계관 문학석사(MACS) 과정 및 기독교세계관 디플로마(DipCS)과정의 문을 두드리보세요. MACS/DipCS 과정은 최고의 기독교세계관 및 기독교 지도자 훈련 프로그램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지난 15년간 150여명의 졸업생과 350여명의 동문들(9학점 이상 이수)을 배출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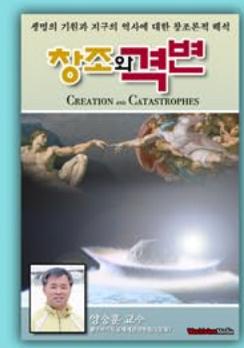
모집분야	기독교세계관 문학석사(MACS-Worldview) 과정(54학점/2.5년) 기독교세계관 디플로마(DCS-Worldview) 과정(29학점/1.5년)
MACS/DCS 과정의 특징	<ol style="list-style-type: none">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북미주신학교협의회(ATS)가 인정하는 TWU대학원의 정규 학위 과정입니다. 한국과 캐나다의 최고의 교수진들이 성경, 신학, 리더십, 세계관, 과학, 가정, 사회 등의 영역에서 성경적 조망을 가르칩니다. 신앙과 삶의 일치, 전공과 직업에 대한 성경적 조망 등, 삶에 직결된 내용을 강의합니다. 배우자는 Work Permit을 받아 일할 수 있으며, 학생들은 졸업 후 Post-Graduate Work Permit을 받아 일할 수 있습니다.
지원자격	학사 이상 학력을 소지한 기독교 신자. 토플 점수 불필요
교수진	VIEW 전임교수, ACTS 교수진, 한국어 및 영어권 겸임교수진 20여명
원서 마감	4월 1일(가을학기) / 전년도 8월 1일(봄학기)
문의처	worldview@twu.ca view.edu, acts.twu.ca 홈페이지 참고 TEL: 1-604-513-2121(교 3834, 3838) 전화로 문의하실 분들은 한국-캐나다(PST) 시차를 고려해주세요.(한국시간 + 8시간)

기독교세계관강의를 온라인으로 만나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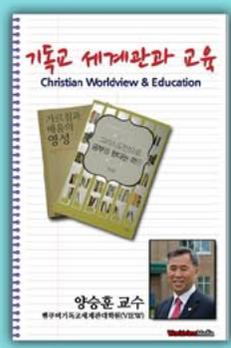
밴쿠버기독교세계관대학원의 세계관 강의를 전세계 어디서나 다양한 플랫폼에서 온라인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폴 스티븐스 교수
18개 강의 (\$36)



양승훈 교수
24개 강의 (\$24)



양승훈 교수
30개 강의 (\$30)

- 구입은 1개 강의씩 날개로 또는 전체 강의를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 구입하신 강의는 1년 간 다양한 기기에서 제한 없이 보실 수 있습니다.
- 신용카드 또는 PayPal로 결제가 가능합니다.
- 구입하신 강의는 Watch Later와 VOD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입처: https://vimeo.com/wvmedia/vod_pages



The all-new OHAUS
EXPLORER

Introducing the most intelligent
and intuitive balance ever to
come from the
mind of OHAUS



새로워진 오하우스

- ✓ 정전기 방지 코팅유리
- ✓ 플터치 패드 방식
- ✓ 적외선 감지센서 기능
- ✓ 자동 도어 방식

Specifications

Model	EX124	EX224	EX324	EX223	EX423	EX623	EX1103	EX2202	EX4202	EX6202	EX10202	EX6201	EX10201
Capacity (g)	120	220	320	220	420	620	1100	2200	4200	6200	10200	6200	10200
Readability (g)	0.0001			0.001			0.01			0.1			
Repeatability std (g)	±0.0001			±0.001			±0.01			±0.1			
Linearity (g)	±0.0002			±0.002			±0.02			±0.1			
Stabilization Time (sec)	s2		s3		s1.5		s1						
Weighing Applications	Weighing, Percent Weighing, Parts Counting, Check Weighing, Dynamic/Animal Weighing, Filling, Totalization, Formulation, Differential Weighing, Density Determination, Peak Hold, Ingredient Costing, Pipette Adjustment, SQC												

오하우스 코리아
서울 강남구 수서동 713, 현대벤처빌 1025호
Tel. (02)2040-6388, Fax. (02)2040-6392
<http://www.ohaus.co.kr>

"생생한 동영상은 유튜브에서 찾으세요"

YouTube www.youtube.com/ohauschannel
Facebook www.facebook.com/ohauscorp



오늘

the

더

행복해

선&정혜영 부부의
가족 에세이



오늘 더 행복해
B5변형 | 192면 | 15,000원
오늘 더 사랑해
B5변형 | 216면 | 13,000원

